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4. 3 | No.174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산업 포커스

자동차 수출 감소로의 전환과 향후 위협 요인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4. 3 | No. 174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 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2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국내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30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4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9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8
(1) 생산	48
(2) 고용	49
(3) 수출	51
2. 지역별 동향	52
(1) 수도권	52
(2) 충청권	54
(3) 호남권	56
(4) 대경권	58
(5) 동남권	60
(6) 강원·제주권	62

V. 산업 포커스

1. 자동차 수출 감소로의 전환과 향후 위협 요인	65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4. 3 | No.174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올 1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반등에도 선행지수 하락세 등으로 미 경기 향방의 불확실성이 여전
 - 연초 UN과 세계은행이 올해 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와 1.6%로 상향한 데 이어, IMF와 OECD도 각각 2.1%와 2.2%의 추가 상향치를 제시
- 일본은 1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내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유로존 역시 1월 실물지표들의 혼조 속에 역내 인플레이율이 2.9%로 재상승
 - 지난해 4분기 일본의 실질GDP가 전분기(전기비 -0.8%)와 달리 소폭의 플러스 성장률(0.1%)을 기록하고, 유로존은 지난해 4분기 독일(전기비 -0.3%)과 프랑스(0.0%) 등 역내 주요국들의 성장 부진으로 역내 성장도 정체(0.0%)
- 중국은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0.8% 하락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 우려가 고조
 - 인민은행이 1월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5년 만기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25bp 인하(3.95%, 역대 최저)하면서 내수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주력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1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미국	실질GDP ¹⁾	1.9	2.5	2.1	4.9	3.1				
	산업생산	3.4	0.2	0.2	0.4	-0.6	-0.8	0.3	0.0	-0.1
	소매판매	9.7	3.4	-0.1	1.7	0.7	-0.3	0.0	0.4	-0.8
	무역수지 ²⁾	-951.2	-769.8	-201.9	-185.9	-182.0	-55.2	-62.7	-64.2	-67.4
일본	실질GDP	1.0	1.9	1.0	-0.8	0.1				
	광공업생산	0.0	-1.2	1.4	-1.2	1.4	1.3	-0.9	1.8	-
	소매판매	2.6	5.6	0.5	2.5	-1.6	-1.7	1.1	-2.6	-
	무역수지 ²⁾	-19,966	-9,289	-1,779	-942	-1,383	-667	-785	69	-
유로	실질GDP	3.4	0.5	0.1	-0.1	0.0				
	산업생산	2.2	-2.3	-1.5	-1.1	0.0	-0.7	0.4	2.6	-
	소매판매	0.9	-1.7	-0.1	-0.3	-0.1	0.4	0.3	-1.1	-
	무역수지 ²⁾	-342.7	58.6	2.1	25.0	39.2	11.1	15.1	13.0	-
중국 ³⁾	실질GDP	3.0	5.2	6.3	4.9	5.2				
	산업생산	3.4	4.6	4.5	4.2	6.0	4.6	6.6	6.8	-
	소매판매	-0.8	7.8	11.4	4.2	8.4	7.6	10.1	7.4	-
	수출(달러화)	5.6	-4.6	-4.8	-9.9	-1.3	-6.6	0.5	2.3	-

자료: 미국 상무부·연준, 일본 내각부·경제산업성·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 금융·유가

□ 올 3월 초 달러화 약세 및 유가 약보합

- 달러화는 2월 중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로 일시 강세를 보인 이후, 미국 실물지표들의 약세 등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약보합을 보이고, 3월 들어 파월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추가 약세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3							202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2일
엔/달러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1.04	146.92	149.98	147.68
달러/유로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1039	1.0818	1.0805	1.0927
미 국채 (10년만기)	3.84	3.96	4.11	4.57	4.93	4.33	3.88	3.91	4.25	4.15
WTI유	70.6	81.8	83.6	90.8	81.0	76.0	71.7	75.9	78.3	77.6
두바이유	76.1	85.6	87.2	92.9	86.7	84.3	76.5	81.2	80.5	83.1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달러화는 2월 중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각각 2.1%와 0.1% 상승하고, 3월 초 현재(2월 13일 기준) 연초 대비 4.7%와 1.0% 상승
- 유가는 2월에 홍해발(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이스라엘-하마스의 협상 정체 등으로 석유 수송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3월 들어 OPEC+ 산유국들의 감산 기간 연장 발표에도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약보합세 시현
- WTI유는 2월 중 3.2% 상승한 반면에, 두바이유는 0.9% 하락하고, 연초 대비로 WTI유와 두바이유는 각각 8.2%와 8.6% 상승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지난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6.8%로 증가세 확대
- 지난해 12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8%로 증가세 소폭 확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7%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상반기	연간	상반기	연간	10월	11월	12월
공업 전체		3.4	3.6	3.8	4.6	4.6	6.6	6.8
섬유	방직	-2.5	-6.6	-5.0	-4.8	-5.3	-3.4	-3.5
	화학섬유	0.5	-1.0	3.9	10.3	15.5	23.2	30.2
화학	에틸렌	1.4	-1.0	3.8	6.0	5.6	4.8	0.1
	플라스틱원료	1.0	1.5	3.7	6.3	9.6	8.1	8.2
	플라스틱제품	-3.2	-4.3	-0.7	3.0	3.6	2.3	2.8
철강	선철	-4.7	-0.8	2.7	0.7	-2.8	-4.8	-11.8
	조강	-6.5	-2.1	1.3	0.0	-1.8	0.4	-14.9
	강재	-4.6	-0.8	4.4	5.2	3.0	4.2	1.5
비철금속		1.0	4.3	8.0	7.1	8.2	7.1	7.3
기계	금속절삭기계	-7.3	-13.1	-2.9	6.4	23.3	21.3	13.5
	소형 트랙터	-17.3	-11.5	24.7	13.4	-7.7	-14.3	0.0
	대기오염방지설비	0.7	4.3	50.2	22.0	19.5	17.7	-19.6
	발전설비	9.4	17.3	28.9	28.5	9.2	57.8	23.3
자동차		-2.1	3.4	6.1	9.3	8.5	23.6	24.5
조선		-11.1	-4.5	1.3	1.6	22.0	3.5	-2.6
전자	세탁기	-4.1	4.6	20.5	19.3	14.5	13.4	11.9
	냉장고	-6.2	-3.6	13.3	14.5	20.3	20.4	14.6
	에어컨	1.1	1.8	16.6	13.5	-0.5	12.8	26.9
	컬러TV	5.8	6.4	5.1	-1.3	-14.8	-11.6	-2.1
	컴퓨터	-4.4	-8.1	-25.7	-17.6	-16.8	-2.3	-5.9
	반도체	-6.3	-11.6	-6.1	6.9	34.5	27.9	34.0
	휴대폰	-2.7	-6.2	-3.1	6.9	2.6	21.6	29.6
서비스	화물운수	-2.2	-3.1	6.8	8.2	11.7	13.6	8.3
	여객운수	-37.2	-37.2	56.3	66.5	99.1	122.5	104.8
	통신 ³⁾	22.7	21.3	17.1	16.8	16.8	17.2	18.6
	소매업	0.1	0.5	6.8	5.8	6.5	8.0	4.8
	음식숙박업	-7.7	-6.3	21.4	20.4	17.1	25.8	30.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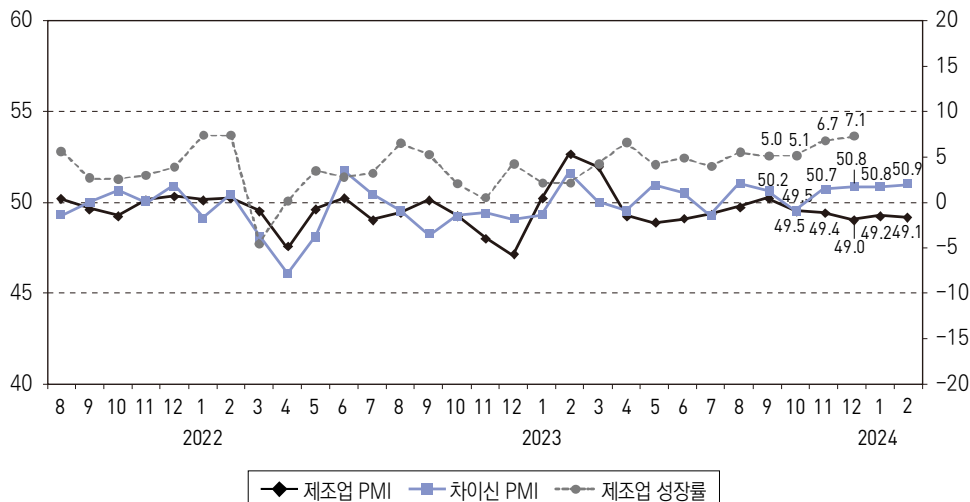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7.1%
- 지난해 11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기업은 전년동기비 7.3%, 민영기업은 5.4%, 주식제기업은 7.2% 수준
- 지난해 12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수출 확대로 자동차 업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철강 등은 부진이 지속되고 서비스업은 소비 증가세 유지되어 지난해 전체 공업 생산량은 4.6% 증가
 - 섬유업종은 방직(-3.5%)은 감소했으나 화학섬유(30.2%)는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학업종은 플라스틱원료(8.2%), 플라스틱제품(2.8%), 에틸렌(0.1%)이 모두 증가
 - 철강은 강재(1.5%)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조강(14.9%)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전방업종의 수요 증가세 둔화와 기저효과로 선철(-11.8%)은 4개월 연속 감소세 확대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비 생산량이 7.3%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 기계업종은 발전설비(23.3%)와 금속절삭기계(13.5%)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대기오염방지설비(-19.6%)는 대폭 감소로 전환되고 소형트랙터(0.0%)는 전년 수준 유지
 - 자동차는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생산량이 24.5%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 조선업은 선박 수주 인도가 완료되며 전년 대비 생산량이 2.6% 감소
 - 전자업종에서 수요 확대로 반도체(34.0%)와 휴대폰(29.6%)이 증가세가 지속 확대되었고 가전인 에어컨(26.9%), 냉장고(14.6%), 세탁기(11.9%)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컬러TV(-2.1%)와 컴퓨터(-5.9%)는 감소세 지속
- 서비스업은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지속
 -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작년 코로나 통제의 기저효과로 여객운수(104.8%)의 세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물운수도 8.3%로 증가세 유지
 - 통신은 18.6%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며 음식숙박업(30.0%)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소매업(4.8%)도 증가세 유지

□ 올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 하락, 민간치 상승

- 올 2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9.1로 5개월 연속 기준치(50) 하회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49.8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수준인 49.0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7.4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7.5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48.8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기준치(50)를 유지했지만, 중형기업과 소형 기업은 기준치(50) 하회 지속
 - 대형기업은 전월수준인 50.4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49.1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한 46.4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올 2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0.9로 4개월 연속 기준치(50) 상회
 - 차이신 PMI는 춘절효과로 공급과 국내외 수요가 모두 증가하며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0.9로 기준치(50) 상회 유지
 - 제조업 시장 회복에 따라 생산이 지속 증가하면서 신규 주문도 증가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지수도 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고용지수는 제조기업은 생산 및 판매 증가에도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과 효율성 개선으로 업종 전반에 걸쳐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소비재기업은 일부 고용 증가
 - 물가지수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투입비용 증가세는 7개월 이래 가장 소폭 상승했으며 기업들은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해 2개월 연속 판매가격을 소폭 하락
 - 기업들의 생산 증가로 구매활동이 증가하고 원자재 재고는 증가하고 완제품 재고는 주문처리로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공급업체의 실적이 소폭 악화하고 운송지연으로 원자재 배송지수가 소폭 하락
 - 기업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는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긍정적 기대의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신제품과 신규 장비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음.

(2) 미국

□ 올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7% 감소

- 올 1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0.7% 감소하고 전월비는 0.8% 감소
 -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전월(47.1)보다 크게 증가
- 기계, 식품, 플라스틱·고무에서 장기간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세 지속
 - 기계는 제조업종 중 가장 크게 5.6% 감소하며 11개월간 감소
 - 식품은 3.7% 감소하고 전월비 1.3% 감소하며 12개월간 감소
 - 플라스틱·고무는 2.3% 감소하고 전월비 1.5% 감소하며 15개월간 하락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2.9	-0.5	-1.0	-0.5	-2.0	-0.7	1.5	-0.7
식품	1.8	-1.7	-3.0	-2.0	-2.7	-2.4	-0.9	-3.7
제지	-1.7	-6.7	-6.5	-1.2	-2.1	-3.0	1.6	-1.9
정유	1.2	1.1	1.5	3.7	1.9	2.2	7.3	3.1
화학	2.2	1.3	1.1	1.8	0.2	0.2	5.0	-0.6
플라스틱·고무	2.8	-4.3	-5.1	-3.5	-5.6	-3.9	-1.1	-2.3
1차금속	-1.2	-0.6	-1.1	1.7	-2.3	2.3	5.1	1.8
가공금속	3.5	-0.6	-1.1	-1.8	-1.9	-1.7	-1.7	-1.4
기계	6.8	-2.7	-3.7	-5.3	-6.3	-5.4	-4.2	-5.6
컴퓨터·주변기기	15.2	12.4	13.2	11.9	12.0	10.6	13.1	10.2
통신기기	11.4	7.1	6.2	9.8	8.5	8.9	12.0	15.8
반도체·전자부품	-2.2	7.3	10.9	15.8	13.8	14.3	19.4	26.4
자동차·부품	7.8	5.2	6.2	0.6	-6.6	4.2	5.4	4.6
항공우주	6.5	7.3	6.8	7.9	6.3	8.4	9.1	11.8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반도체·전자부품, 통신기기, 항공우주에서 전년동월비가 최근 들어 가장 크게 증가
 - 반도체·전자부품은 26.4% 증가하며 최근 2년 중 가장 크게 증가
 - 통신기기는 15.8% 증가하며 최근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
 - 항공우주는 11.8% 증가하며 최근 1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
 - 이 밖에도 컴퓨터·주변기기(10.2%), 자동차·부품(4.6%), 정유(3.1%), 1차금속(1.8%)이 증가

(3) 일본

□ 올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4% 감소

- 올 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비 13%, 전년동월비 1.4% 감소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0.1	-1.1	-3.6	-0.5	0.9	-1.4	-1.0	-1.4
철강·비철금속	-4.6	-2.7	-1.3	-2.6	-1.5	-4.1	-2.0	-0.4
금속제품	-0.5	-3.5	-6.4	-3.4	-0.8	-5.8	-3.5	-4.1
생산기계	10.1	-10.0	-18.6	-13.4	-15.8	-13.4	-11.3	1.7
일반용·업무용기계	3.7	-2.5	-7.4	-0.7	-3.3	-4.3	5.9	-4.8
전자부품·기기	-5.9	-9.2	-9.5	1.1	1.3	0.8	1.3	4.4
전기·정보통신기기	-0.9	1.6	-2.9	-2.9	0.2	-4.9	-3.8	-7.8
수송기기	-0.8	14.4	11.6	14.4	18.5	13.2	11.7	4.5
요업·토석제품	-4.6	-5.0	-4.6	-2.7	-1.4	-3.1	-3.5	-3.5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3.8	-6.4	-7.6	-3.7	-2.9	-5.3	-2.8	-3.9
석탄·석유제품	6.3	-4.2	-4.8	-6.1	-5.4	-10.1	-3.0	-9.7
플라스틱제품	-2.0	-2.0	-3.1	2.2	4.1	1.2	1.3	0.8
펄프·종이·가공품	-1.0	-5.6	-6.3	-5.2	-5.1	-5.6	-5.0	-5.6
식품·담배	-0.7	-	-	-	-	-	-3.7	-
기타 제조업	-0.9	-3.1	-4.6	-2.6	-2.1	-2.6	-3.2	-5.3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 모든 업종에서 전월비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다수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부진세 지속
 - 전월비는 일반용·업무용기계(-17.6%), 수송기기(-16.9%), 생산기계(-16.1%), 전기·정보통신기기(-15.7%), 요업·토석제품(-12.4%), 플라스틱제품(-11.2%), 금속제품(-10.1%) 등 다수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이상 감소
 - 석탄·석유제품은 전년동월비가 9.7% 감소하며 제조업종 감소를 주도(전월비 -6.8%)
 - 이 밖에도 전기·정보통신기기에서 전년동월비가 7.8% 감소하였으며 펄프·종이·가공품은 5.6% 감소(전월비 -9.1%), 기타 제조업에서 5.3% 감소(전월비 -9.7%), 일반용·업무용기계에서 4.8% 감소
- 수송기기는 전년에 이어 전년동월비 호조세 지속

- 수송기기는 4.5%, 전자부품·기기 4.4%(전월비 -8.1%), 생산기계 1.7%, 플라스틱제품 0.8% 증가

(4) 유로존¹⁾

□ 올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7% 감소

- 1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 섬유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7.7% 감소
 - 자동차는 완성차(-12.8%), 부품(-6.8), 차체 및 트레일러(-2.8%)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10.8% 감소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3						2024
	2023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제조업 전체	-1.8	-4.5	-4.3	-6.6	-5.9	0.3	-7.7
식음료	-1.2	-1.2	-1.0	-1.4	-2.7	1.4	3.2
섬유	-6.9	-6.4	-3.8	-5.0	-5.8	0.3	-5.9
정유	-2.7	-2.1	-0.4	8.9	-2.3	-6.5	-4.6
화학	-7.6	-7.0	-0.9	-1.9	0.0	-0.8	-1.6
고무·플라스틱	-4.4	-4.6	-3.7	-3.8	-4.7	-2.2	-4.5
1차금속	-4.3	-3.4	-1.7	-2.3	-3.6	1.5	-3.7
조립금속	-2.1	-1.7	-2.8	-3.5	-3.7	-0.8	-4.9
기계	0.6	-1.0	-4.1	-4.3	-4.3	-3.9	-6.1
통신기기	1.6	-0.9	3.6	1.0	4.7	5.0	-4.2
전자부품	0.0	-2.1	-9.6	-8.0	-12.0	-8.7	11.9
자동차	11.2	5.6	0.3	5.0	-0.2	-4.8	-10.8
조선	7.6	10.5	7.7	7.5	5.3	10.9	8.1

자료: Eurostat.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의 20개 국가.

- 기계의 경우 농업 및 임업용 기계(-18.5%), 가공 공작기계(-6.6%), 일반목적용 기계(-6.4%)의 부진으로 인하여 6.1% 감소
- 섬유는 제직, 방직 및 기타 섬유가 각각 8.6%, 7.7% 및 6.6% 감소하며 5.9% 감소
- 반면, 조선의 경우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9.7%)과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8.5%) 증가로 인해 8.1% 증가
- 전자부품 및 식음료는 각각 11.9%, 3.2% 증가

Ⅱ

국내 실물경제

01 국내 경기

□ 올 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4% 증가, 소비 0.8% 증가, 투자 5.6% 감소

- 올 1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전월에 이어 감소폭(전월비 -1.3%)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이 소폭 증가세(0.1%)를 유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
 - 광공업 생산은 1차금속(4.1%) 생산이 증가한 반면에, 반도체(-8.6%)와 기계장비(-11.2%) 등이 상당폭 감소하면서 전월비 1.3%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9%)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소폭 증가(0.1%)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비 -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가 동반 감소세를 보임에도,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현저히 확대(0.7% → 2.3%)된 데 힘입어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0.6% → 0.8%)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3.4%)와 운송장비(-12.4%)가 동반 감소한 여파로 인해 상당폭 감소(-5.6%)한 반면에, 건설기성액(불변)이 건축(12.3%)과 토목(12.8%) 공사 실적의 동반 호조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12.4%)
 -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 생산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 건설기성액과 서비스업 생산 등이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4%)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리차와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하면서 11개월 연속으로 상승(0.3%)

국내 실물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GDP성장률	2.6*	1.4*	0.9* (0.6*)	1.4* (0.6*)	2.2*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1*	1.8*	1.6* (-0.1*)	0.2* (0.3*)	0.9*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9*	0.5*	4.7* (0.5*)	-4.2* (-2.2*)	-3.6* (3.3*)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2.8*	1.3*	1.7* (-0.8*)	3.8* (2.1*)	-1.9* (-4.5*)	-	-	-	-
전산업생산지수	4.6	1.0	-0.3 (0.6)	1.3 (1.0)	1.3* (0.7*)	1.5 (-0.7)	2.2 (0.3)	0.4* (0.4*)	7.3* (0.4*)
광공업생산지수	1.0	-2.6	-6.1 (2.6)	-0.4 (1.3)	4.7* (2.1*)	2.0 (-1.7)	6.1 (1.6)	6.1* (-0.5*)	12.9* (-1.3*)
제조업생산지수	0.9	-2.6	-6.2 (3.0)	-0.2 (1.3)	5.1* (2.2*)	2.3 (-1.6)	6.2 (1.4)	6.6* (-0.6*)	13.7* (-1.4*)
서비스업생산지수	7.0	3.1	2.6 (0.0)	2.3 (1.0)	1.7* (0.3*)	1.6 (-0.3)	2.5 (0.0)	0.9* (1.1*)	4.4* (0.1*)
소매판매액지수	-0.3	-1.5	-0.7 (-0.5)	-2.7 (-1.9)	-1.9* (0.4*)	-4.8 (0.8)	-0.1 (-0.1)	-0.6* (0.6*)	-3.4* (0.8*)
설비투자지수	3.3	-5.4	-0.9 (1.0)	-10.7 (-3.1)	-8.5* (3.1*)	-9.1 (-1.9)	-10.8 (-2.0)	-5.8* (2.3*)	4.1* (-5.6*)
건설기성액	2.8	7.4	8.7 (1.1)	10.1 (1.1)	0.9* (-2.2*)	3.4 (-0.5)	2.2 (-2.4*)	-2.2* (-2.9*)	17.6* (12.4*)
동행종합지수(2020=100)	108.2	110.2	110.3	110.4	111.0*	110.9	111.0*	111.1*	111.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100.0	100.4	99.8	99.7*	99.8	99.7*	99.6*	99.7*
선행종합지수(2020=100)	108.7	110.9	109.9	111.4	112.9*	112.4	113.0*	113.4*	113.7*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4	99.4	98.8	99.5	100.1*	99.9	100.1*	100.3*	100.3*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감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02 고용

□ 올 2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2% 증가

- 올 2월 전 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세가 약간 더 확대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하락(1.4% → 1.2%)
 -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는 3개월 연속 확대(0.5% → 0.9%)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과 달리 감소세가 확대(-0.6% → -2.7%)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약간 둔화(1.7% → 1.5%)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3.6% → 1.8%)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0.1% → 0.0%)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산업	28,089	28,416	28,693	28,687	28,518	28,698	28,764	28,698	28,093	28,043
전년동기비	3.0	1.2	1.2	0.9	1.1	1.1	1.2	1.0	1.0	1.2
농림·어업	4.6	-0.8	-0.3	-1.3	-0.3	-0.2	1.0	-0.1	-2.0	-2.7
제조업	3.1	-0.9	-1.1	-1.3	-0.6	-1.6	-1.7	-0.3	0.2	0.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8	1.5	1.5	1.7	1.8	1.3	1.4	1.5
건설업	1.6	-0.4	-2.4	-0.1	1.8	1.7	0.6	1.5	3.4	1.8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1.8	1.0	0.6	0.9	1.1	0.3	0.3	0.0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1.3	1.2	3.4	2.0	3.6	3.1	3.4	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9	2.3	2.8	2.2	1.3	2.0	1.8	1.2	0.8	1.3
실업률(계절조정, %)	2.9	2.7	2.6	2.6	2.9	2.6	2.5	2.8	3.3	2.6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6% → 8.5%), 정보통신업(4.8% → 7.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5.6% → 5.9%)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4.0% → 2.6%)에서 취업자 증가세 둔화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3.2% → -1.4%)에서 취업자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전체 증가세가 둔화(1.8% → 1.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6%로서 2개월 연속 하락세

03 물가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상승, 전년동월비 3.1%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5%)과 식료품·비주류음료(1.4%)를 비롯해서 음식·숙박(0.3%), 주택·수도·전기·연료(0.3%), 보건(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전월비 0.5% 상승(전년동월비 2.8% → 3.1%)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5.1	3.6	3.3 (0.6)	3.1 (1.0)	3.4 (0.7)	3.7 (0.5)	3.8 (0.4)	3.3 (-0.5)	3.2 (0.0)	2.8 (0.4)	3.1 (0.5)
근원물가	4.1	4.0	4.3 (0.9)	3.7 (0.5)	3.3 (0.6)	3.7 (0.2)	3.5 (0.4)	3.2 (-0.1)	3.1 (0.2)	2.6 (0.3)	2.6 (0.2)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국내 금융·외환

□ 올 2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3월 초(3월 4일~12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올 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상당폭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폭 역시 확대(2024년 1월 +6조 7,000억 원 → 2월 +8조 원, 대기업 +3조 3,000억 원, 중소기업 +4조 7,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이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관련 대출 확대 노력과 기업들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연초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 수요세 지속과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조달 유인 증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순발행 기조가 지속되고, CP·단기사채는 은행 대출 활용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순상환 기조로 전환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2		2023				2024		2024년 2월 말 잔액
	1~2월	2월	1~2월	2월	12월	1~2월	1월	2월	
은행 원화대출	19.8	6.3	13.1	5.2	-5.9	14.7	6.7	8.0	1,262.4
(대기업)	4.9	0.7	7.5	0.9	-2.0	8.4	5.2	3.3	256.2
(중소기업)	14.9	5.7	5.6	4.3	-3.9	6.2	1.5	4.7	1,006.2
〈개인사업자〉	4.9	2.7	0.5	1.4	-1.0	0.4	-0.7	1.1	450.7
회사채순발행	3.1	0.7	7.5	4.3	0.3	8.1	4.5	3.6	..
CP순발행	10.2	4.4	5.2	-1.7	-4.6	5.7	6.6	-0.8	61.2
주식발행	13.0	0.0	1.7	0.2	0.6	0.5	0.3	0.2	..
은행 가계대출	-0.6	-0.2	-7.4	-2.8	3.1	5.3	3.3	2.0	1,100.3
(주택담보대출)	3.9	1.7	-0.3	-0.3	5.1	9.6	4.9	4.7	860.0
(기타대출)	-4.6	-2.0	-7.0	-2.4	-2.0	-4.2	-1.5	-2.7	239.1

자료: 한국은행.

- 올 2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에,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2024년 1월 +3조 3,000억 원 → 2월 +2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도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와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된 반면에, 기타대출은 연초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으로 감소폭이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2월 중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일시 상승한 이후, 미국 실물 지표 약세와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하고, 3월 들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세(3월 4일 3.360% → 3월 12일 3.273%, -0.09%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에 글로벌 달러화의 일시 강세에도 미 실물지표 약세로 인한 추가 긴축 우려 완화와 중국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세를 보인 이후, 3월 초 파월 연준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하락세(3월 4일 1,331.3원 → 3월 12일 1,311.0원, -20.3원)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2024		
		4/4	1/4	2/4	3/4	4/4	1월	2월	3월 12일
국고채(3년)	1.80	3.72	3.27	3.66	3.88	3.15	3.26	3.39	3.27
회사채(3년, AA-)	2.42	5.23	4.07	4.47	4.64	3.90	4.00	4.04	3.92
CD(91일)	1.29	3.98	3.59	3.75	3.83	3.83	3.68	3.69	3.66
CP(91일)	1.56	5.28	4.01	4.02	4.08	4.32	4.28	4.28	4.28
원/달러	1,188.8	1,264.5	1,301.9	1,317.7	1,336.5	1,288.0	1,334.6	1,331.5	1,311.0
원/100엔	1,030.2	953.2	981.4	907.0	901.3	912.7	901.9	885.8	894.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올 2월 수출 4.8% 증가, 수입 13.1% 감소,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8% 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약 4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CT 주요 품목들과 조선·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다수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 전환되고, 지역별로는 미국·아세안·중남미·CIS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EU·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시현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전년비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큰 폭 감소(-21.2%) 하고, 비에너지 수입도 10.0%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 감소율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83.3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0.1% 높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0.8%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도 0.9% 증가한 약 73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출	6,836 (6.1)	6,322 (-7.5)	1,558 (-12.0)	1,571 (-9.7)	1,682 (5.7)	550 (4.9)	556 (7.3)	576 (5.0)	547 (18.0)	524 (4.8)
수입	7,314 (18.9)	6,426 (-12.1)	1,593 (-13.2)	1,507 (-21.6)	1,586 (-10.7)	534 (-9.7)	520 (-11.6)	531 (-10.9)	544 (-7.9)	481 (-13.1)
무역수지	-478	-103	-35	64	96	16	36	45	3	43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2024년 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Ⅲ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3.7% 증가, 전월비 1.4% 감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44.1%), 자동차(13.2%)를 비롯해 기타운송장비(18.5%), 1차금속(10.0%), 화학제품(5.1%), 전자부품(5.1%), 섬유제품(3.0), 기계장비(1.3%)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하면서 13.7% 증가(2021년 5월 이후 최대폭)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1.2%)와 중공업(14.7%)에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한 반면, 경공업(7.7%)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 1차금속(4.1%)과 전자부품(3.2%), 섬유제품(1.6%), 화학제품(0.1%)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운송장비(-13.0%)와 기계장비(-11.2%), 반도체(-8.6%), 자동차(-3.2%)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1.4%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2.6)는 전자부품과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에,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인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1.5% 상승(3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 대비 약 6.5%포인트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월 중 재고 감소폭(-1.8% → -4.8%,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확대된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2	2023						2024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9.6	106.7	106.4	106.4	112.6	114.1	115.9	109.4	-
전년동기비 증가율	-	1.0	-2.6	-6.1	-0.4	4.7	6.1	6.1	12.9	-1.3
제조업(원지수)	9,532.0	109.8	106.9	107.1	106.9	113.0	114.6	115.5	108.2	-
전년동기비 증가율	-	0.9	-2.6	-6.2	-0.2	5.1	6.2	6.6	13.7	-1.4
섬유	110.6	-1.8	-9.4	-10.0	-8.8	-7.9	-6.5	-7.8	3.0	1.6
화학	756.8	-9.9	-9.6	-14.9	-2.7	1.9	5.0	0.7	5.1	0.1
철강	433.8	-8.4	2.7	-1.9	3.6	19.8	20.8	11.7	12.9	5.1
반도체	1,855.1	5.4	-2.0	-15.8	13.8	34.5	40.7	47.0	44.1	-8.6
컴퓨터·주변장치	30.0	11.2	-12.4	-14.7	-17.2	-17.9	-26.0	-33.2	27.1	20.5
통신·방송장비	134.7	-5.2	-4.0	-16.5	-10.4	-2.6	2.6	10.7	-8.6	46.8
의료·정밀·광학	237.0	5.4	-10.0	-12.3	-10.9	-12.0	-12.7	-12.9	7.8	1.8
기계·장비	776.7	0.6	-7.8	-6.5	-12.9	-11.8	-13.0	-7.9	1.3	-11.2
자동차	1,014.2	9.1	10.2	15.8	5.2	0.2	-1.7	-0.4	13.2	-3.2
조선	76.7	21.0	2.3	1.1	4.5	-7.3	-2.1	-11.5	-6.9	-15.8
- 중공업	8,111.7	1.0	-2.0	-5.8	0.7	6.7	7.7	8.9	14.7	-2.3
- 경공업	1,420.3	0.7	-5.9	-8.1	-5.6	-4.4	-2.5	-6.7	7.7	4.6
- 제조업ICT	2,537.6	0.5	-5.6	-16.8	5.8	23.3	26.6	33.5	31.2	-4.8

자료: 통계청(*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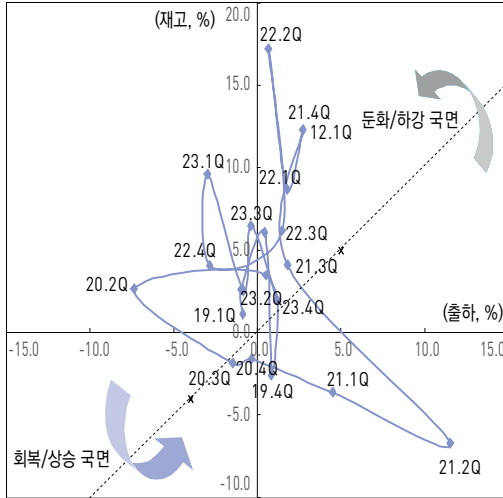
반면, 출하 증가폭이 축소(7.4% → 1.8%)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0%로 전월비 0.1%포인트 상승 전환

□ 2월 수출, ICT(반도체·컴퓨터 등)·장비(선박·기계 등)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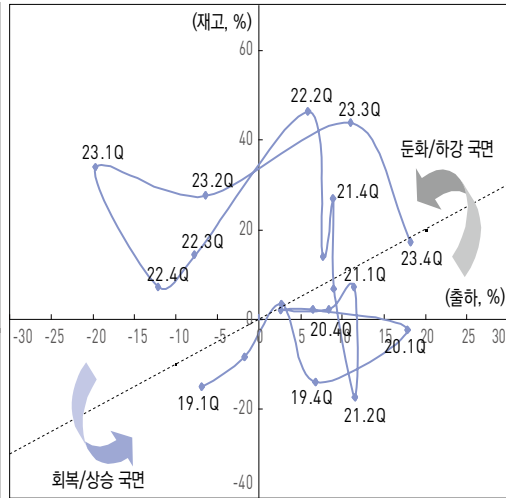
- ICT 품목에서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장비 관련 품목에서는 선박과 일반기계 수출이 각각 7개월과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수출의 증가세를 견인(1월 18.0% → 2월 4.8%)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9년 1분기~2023년 4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4Q는 2023년 10월~2024년 1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9년 1분기~2023년 4분기)



자료: 통계청.
주: 23.4Q는 2023년 10월~2024년 1월 평균.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자동차	16.4	31.1	48.9	17.1	19.6	19.7	21.5	17.8	24.7	-7.8
자동차부품	2.4	-1.6	1.0	0.4	-3.9	-3.8	3.5	-10.8	10.8	-1.7
선박류	-20.9	19.9	21.6	-5.7	58.7	101.8	31.6	46.6	76.0	27.7
일반기계	2.0	4.6	5.5	6.7	8.5	10.3	13.8	2.1	14.5	1.2
철강	5.7	-8.5	-5.8	-5.5	-5.9	-0.9	-11.1	-5.2	2.0	-9.9
석유화학	-1.4	-15.9	-24.3	-13.8	2.2	-3.2	6.1	4.0	4.0	-3.1
석유제품	64.9	-17.3	-34.8	-27.4	1.5	16.1	-6.7	-4.0	12.0	-3.9
섬유	-4.0	-11.3	-11.3	-11.8	-6.3	-9.0	0.5	-10.1	8.5	-11.9
가전	-7.4	-1.0	-7.6	7.0	7.5	5.7	13.9	2.9	14.1	-4.3
무선통신기기	-10.4	-10.2	-20.8	-8.4	0.4	-4.5	8.3	-3.0	-14.2	-16.5
컴퓨터	-4.7	-53.3	-61.6	-48.1	-31.6	-30.5	-29.3	-34.5	37.2	18.4
반도체	1.0	-23.7	-34.8	-22.6	10.4	-3.1	12.9	21.7	56.2	66.7
디스플레이	-1.1	-12.1	-16.5	1.2	10.8	15.5	5.9	10.9	2.1	20.2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2024년 2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자동차

□ 2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2위 규모 기록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감소

- 2월 수출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동월비 6.2% 감소
 - 완성차 수출은 역대 2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전년도 기저효과와 일부 업체의 설비 공사 및 설날 휴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7.8% 감소
 - 자동차부품 수출은 설 연휴 등으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1.7% 감소
- 1월 내수는 국산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등록 대수 감소로 전년동월비 0.3% 감소
 - 국산차 판매는 전년동월비 영업일수 증가와 친환경 자동차 판매 증가 등으로 2.8% 증가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일부 브랜드 재고 부족과 전기차 보조금 미확정에 따른 출고 지연 등으로 19.4% 감소
- 1월 생산은 가동일수 증가와 수출 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전년동월비 증가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1	10.2	15.8	5.2	0.2	-1.7	-0.4	13.2	-
	생산(전기비)	-	-	3.0	-1.8	-1.0	-4.3	1.2	-3.2	-
	출하	8.1	10.8	17.9	4.3	1.1	2.5	-1.6	11.1	-
	재고	23.7	7.8	9.8	23.6	7.8	6.0	7.8	9.2	-
	가동률	7.1	3.2	5.1	-1.7	-3.5	-4.5	-4.3	5.6	-
	내수판매동향	-2.2	3.0	7.3	-3.7	-5.2	1.2	-11.7	-0.3	-
교역 동향	수출	11.8	21.2	33.8	12.2	13.4	16.9	10.1	21.2	-6.2
	수입	8.0	2.9	23.4	-15.5	-11.7	-22.6	-1.8	-29.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북미 지역으로의 높은 수출 증가세와 국내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로 생산과 출하가 각각 13.2%와 11.1% 증가
- 일부 업체의 설비 공사 등으로 전월비 생산은 3.2% 감소

(3) 조선

□ 생산지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

- 1월 생산 및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6.9%, 16.1% 감소하였으며, 생산능력 증가에도 가동률은 17.9% 큰 폭으로 하락하며 주요 생산지표 모두 악화
 - 가동률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하며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과 출하 역시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생산지표 부진 지속
- 2월 수출은 27.7% 증가하였는데, 생산, 출하의 감소에도 고선가에 수주한 선박과 고가의 해양플랜트가 통관되며 수출 증가를 견인
 - 고선가에 수주한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이 통관되며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
 - * 클락슨 신조선가치수: (2021년 1월) 127.1 → (2022년 1월) 156.3 → (2024년 1월) 181.1
- 1월 수입은 13.1% 감소하였는데, 선박용 부품 수입이 35.7% 증가하였음에도, 화물선 수입이 감소하면서 25.5% 감소하며 전체 수입 감소를 견인
 - 전년동월 호주에서 수입된 화물선이 기저효과로 작용하여 전체 수입 감소를 이끌었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화물선 수입 증가
 - 한편, 선박용 부품의 수입은 일본, 중국, 노르웨이로부터 선박용 부품 조달이 증가하며 35.7% 증가
- 1월 수주는 고금리, 홍해 위협,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해운시장 불안요인 상존에도, 우리나라는 전체 발주량의 38%를 수주하여 세계 2위
 - 세계 선박 발주량은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343만 CGT를 기록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1.0	2.3	1.1	4.5	-7.3	-2.1	-11.5	-6.9	-
	생산(전기비)	-	-	-1.6	1.7	-3.2	8.9	-8.5	-15.8	-
	출하	14.3	-5.4	-8.5	-0.9	-9.8	-5.0	-12.7	-16.1	-
	가동률	23.1	-3.1	-1.4	-1.9	-17.1	-14.8	-20.6	-17.9	-
교역 동향	수출	-20.9	19.9	21.6	-5.7	58.7	31.6	46.6	76.0	27.7
	수입	-13.2	-21.1	-15.7	-19.3	-9.4	-33.2	19.0	-13.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LPG운반선, 제품운반선을 대량으로 수주하여 전년동월비 107% 증가한 132만 CGT를 수주, 누적수주잔량은 3,873만 CGT로 전년동월비 1.9% 증가

- 환경·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며 컨테이너선 해상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벌크 운임은 중국의 경제둔화에 대한 우려로 약세 지속

* 벌크선 운임지수(BDI): (1월 5일) 2,110 → (2월 2일) 1,407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1월 5일) 1,897 → (2월 2일) 2,218

(4) 일반기계

□ 생산은 증가세 전환,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1%대로 둔화

● 1월 일반기계 생산은 국내시장 호조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3% 증가

- 내수판매와 설비투자의 증가세 전환 및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세에 힘입어 10개월 만에 증가세 기록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1월) -10.6 → (12월) -5.0 → (2024년 1월) 9.3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6	-7.8	-6.5	-12.9	-11.8	-13.0	-7.9	1.3	-
	생산(전기비)	-	-	-3.1	-1.9	2.5	4.9	2.7	-11.2	-
	출하	-0.1	-5.9	-3.0	-9.4	-10.1	-11.3	-8.2	0.5	-
	재고	19.4	-11.7	11.1	1.3	-11.7	-12.6	-11.7	-9.2	-
	가동률	5.6	-2.8	2.2	-6.8	-13.5	-11.1	-15.1	-6.1	-
교역 동향	수출	2.0	4.6	5.6	6.7	8.6	13.8	2.1	14.5	1.2
	수입	0.7	-2.8	0.2	-8.5	-3.5	-4.9	-4.9	-1.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1월) -19.8 → (12월) -8.1 → (2024년 1월) 9.6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11월) 14.3 → (12월) 12.9 → (2024년 1월) -2.7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월비 22.6%포인트 상승한 141.9% 기록

* 재고율(%): (2023년 11월) 124.0 → (12월) 119.3 → (2024년 1월) 141.9

- 가동률은 전방산업의 경기 부진 여파로 하락세(-6.1%) 지속

- 2월 수출은 대EU 수출 부진 지속 및 대중국·인도·중동 수출 감소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대미·중남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2% 증가

- 대미·중남미 수출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영향에 따른 공작기계 수요 지속 및 광산 생산 증가에 따른 중장비 수요가 지속되면서 각각 25.3%, 17.6% 증가율 기록

- 대중국 수출은 춘절 연휴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 하락의 여파로 감소세(-39.7%) 전환

- 대중동 수출은 제조업 부문의 신규 주문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10.2%) 전환

- 대인도 수출은 중국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소세(-22.2%) 지속

* 2월 주요국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11.0, +25.3%), 중국(3.5, -39.7%), 중동(1.6, +10.2%), 중남미(2.8, +40.8%), 인도(1.1, -22.2%)

- 1월 수입은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1.1% 감소
 - 주요 품목별로는 압연기·용접기 및 구조설비(+74.4%), 금형(+59.7%), 금속공작기계(+22.7%)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목재·광물 및 유리 가공기계(-31.3%), 농기계(-29.0%), 기타기계류(-26.7%) 등은 감소

(5) 철강

□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감소, 생산은 증가세 지속

- 1월 생산은 자동차 생산 호조에 따른 판재류 수요 증가와 전년도 봉형강류 생산 부진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2.9% 증가
 -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생산용 수요 증가와 신흥국으로의 수출 확대 영향으로 전월비 생산은 5.1% 증가
 - 품목별로는 전월에 이어 아연도강판, 중후판 등 판재류의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도 건설경기 위축으로 생산이 부진했던 봉형강류의 생산은 기저효과로 증가세 전환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7.3%), 봉형강류(7.7%), H형강(25.4%), 철근(7.7%), 선재(-5.5%), 판재류(7.7%), 열연강판(1.3%), 중후판(12.8%), 용융아연도강판(10.1%), STS핫코일(73.6%), STS냉연강판(63.6%), 전기강판(30.2%), 강판(13.0%)
- 2월 수출은 수출단가 하락과 중동 및 인도시장 내 수출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9.9% 감소
 - 2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톤당 1,125달러로 전년동월비 11.9% 하락
 - 지역별로는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월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최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 인도지역의 경우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3년 2월) 1,277 → (2024년 2월) 1,125(-11.9%)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28.4%), EU(-27.2%), 미국(-33.6%), 일본(-23.7%), 인도(-13.8%), 중동(-33.4%)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4	2.7	-1.9	3.6	19.8	20.8	11.7	12.9	-
	생산(전기비)	-	-	3.1	-3.4	-0.4	-5.0	-0.8	5.1	-
	출하	-6.8	2.9	1.5	5.6	11.0	16.3	4.6	11.2	-
	재고	-10.0	8.8	-4.2	2.0	8.8	2.0	8.8	6.4	-
	가동률	-8.7	2.4	-2.2	3.2	20.1	20.8	11.9	13.2	-
교역 동향	수출	5.7	-8.5	-5.8	-5.5	-5.9	-11.1	-5.2	2.0	-9.9
	수입	2.0	-9.6	-13.7	-10.5	-4.3	-7.3	-5.1	0.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1월 수입은 판재류 내수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주요 수입국 철강재의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량 확대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3% 증가
 - 1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1,017달러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비 하락폭(-2.9%)은 전월(-8.0%)에 비해 축소
 -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판재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판재류 수입물량이 큰 폭 확대
 - 특히 인도로부터의 판재류 수입 증가폭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수입단가가 크게 하락한 중국산 열연강판,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의 수입물량도 전년동월비 30% 이상의 증가세 시현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1.7%), 일본(-14.7%), 브라질(138.4%), 베트남(-2.1%), 미국(6.2%), 대만(-23.6%), 말레이시아(205.3%), 인도(172.5%), 러시아(6.1%)
 -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냉연강판(45.1%), 아연도강판(33.3%), 중후판(13.2%), 열연강판(1.8%), H형강(-3.4%), 철근(-14.7%), 선재(-33.6%)

(6) 정유

□ 수출은 전년동월비 유가 및 정제마진 약세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감소

- 1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 동반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5.5% 증가
 - 내수는 LPG를 제외한 전반적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로 6.7%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아스팔트(63.6%), 항공유(24.9%), 윤활유(20.0%), 휘발유(19.9%), 경유(8.0%), 병커C유(1.8%), 나프타(7.4%), LPG(-8.8%)
 - 수출물량은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21.4% 확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LPG(48.7%), 나프타(34.0%), 항공유(26.6%), 휘발유(19.1%), 경유(2.7%), 윤활유(-6.6%), 아스팔트(-12.3%), 병커C유(-77.7%)
- 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낮은 수준의 유가 및 정제마진으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3.9% 감소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9	0.0	2.2	-8.1	5.8	4.1	6.7	5.5	-
	생산(전기비)	-	-	3.3	-7.2	9.9	-2.1	-2.3	2.7	-
	출하	2.3	1.2	4.5	-9.9	7.1	8.7	8.2	9.3	-
	재고	-2.7	4.8	-15.3	-3.9	4.8	-3.1	4.8	2.8	-
	가동률	2.0	0.1	2.2	-8.1	5.4	3.5	6.2	5.4	-
	내수판매동향	1.1	-2.2	-2.6	-2.5	0.1	3.7	-6.3	6.7	-
교역 동향	수출	64.9	-17.3	-34.8	-27.4	1.5	-6.7	-4.0	12.0	-3.9
	수입	10.9	-13.3	-28.9	-15.6	8.8	10.5	-4.3	24.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약세로 3.2% 하락
- 수출물량은 수송용 석유제품의 견조한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3년 2월) 82.1 → (2024년 2월) 80.9(-1.5%)
 - *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3년 2월) 824 → (2024년 2월) 798(-3.3%)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3년 2월) 46.0 → (2024년 2월) 44.2(-3.9%)
- 지역별로는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감소 추세 지속
 -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중남미(341.8), 일본(16.6), 아세안(-10.9), 미국(-26.6)

(7) 석유화학

□ 국내 석유화학 생산량은 증가하나, 중국발 수입수요 위축으로 수출액은 전년비 감소

- 1월 석유화학제품 생산량과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증가(각각 5.1%, 4.2%)하였고, 재고량은 감소
 - 주요 생산시설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4.7% 상승하며 평년 수준으로 접근 중
 - 1월 중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45달러로, 2023년 4분기 수준에 머무르며 업체 수익성 회복은 더딘 모습
 - 지정학적 요인(홍해 지역 분쟁)으로 유럽산 나프타의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워지며, 원료가격 상승을 견인
 - 에틸렌, 아로마틱 제품군의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하며, 관련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가격 상승을 견인
 - * 합성수지(HDPE, ABS), 합섬원료(EG), 아로마틱 기초제품(PX) 가격 상승
- 공급 과잉 및 중국발 수요 약화의 영향으로 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3.1% 감소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비 각각 1.5%, 8.3%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3년 2월) 82.1 → (2024년 2월) 80.9(-1.5%)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3년 2월) 1,320 → (2024년 2월) 1,211(-8.3%)
 -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와 춘절 대비 전방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미미하여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리오프닝 직후보다 낮은 수준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9	-2.6	-14.9	-2.7	1.9	5.0	0.7	5.1	-
	생산(전기비)	-	-	-0.2	0.0	1.2	2.2	-3.0	0.1	-
	출하	0.3	-0.5	-7.5	1.0	1.2	3.2	2.3	4.2	-
	재고	4.1	-2.1	-9.2	-14.3	-4.5	-4.4	-4.5	-7.1	-
	가동률	-9.8	-8.9	-13.3	-3.5	0.9	3.7	1.3	4.7	-
교역 동향	수출	-1.4	-15.9	-24.2	-13.4	2.3	6.1	4.0	4.0	-3.1
	수입	-2.3	-15.2	-20.7	-16.4	-1.1	-4.8	-6.1	-0.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 인도 건설업황이 호조세를 유지하며 전자재용 화학제품 수출량 증가세 지속

* 2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중국(-13.2%), 아세안(1.6%)

(8) 섬유

□ 국내외 수요 증가로 생산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2월 수출은 감소

● 1월 생산은 의류 내수 및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0.5% 감소하며 감소세 둔화

- 내수는 소비심리지수 상승과 함께 명품브랜드 매출을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소폭 늘어나며 회복세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2023년 11월) 14.9% → (12월) -1.2% → (2024년 1월) 1.8%

* 백화점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전년동월비): (2023년 11월) -1.6% → (12월) 10.5% → (2024년 1월) 6.6%

* 한국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3년 11월) 97.2 → (12월) 99.5 → (2024년 1월) 101.6

석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7	-13.6	-15.4	-11.9	-14.5	-12.7	-12.4	-0.5	-
	생산(전기비)	-	-	-4.1	1.2	-2.2	-2.4	-3.6	7.0	-
	출하	-3.5	-12.0	-13.9	-11.7	-12.6	-10.7	-15.3	0.6	-
	재고	0.4	-10.6	-9.8	-10.8	-10.6	-14.0	-10.6	-10.8	-
	가동률	6.5	-5.9	-7.2	-6.5	-4.6	-4.6	-5.3	3.0	-
교역 동향	수출	-4.0	-11.3	-11.3	-11.8	-6.3	0.5	-10.1	8.5	-11.9
	수입	8.8	-5.2	-6.4	-7.7	-5.4	-1.1	-9.4	1.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1월 품목별 생산은 내수 회복으로 봉제 의복의 감소폭이 -2.5%로 크게 완화되고 직물은 9.4%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화학석유·원사는 국내 폴리에스테르 공장 가동 중단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각각 16.2%, 9.2% 감소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2023년 11월) -18.1% → (12월) -15.7% → (2024년 1월) -2.5%

* 원사(전년동월비): (2023년 11월) -10.7% → (12월) -6.6% → (2024년 1월) -9.2%

* 편물(전년동월비): (2023년 11월) -10.4% → (12월) 1.0% → (2024년 1월) -1.5%

* 화학석유(전년동월비): (2023년 11월) -28.7% → (12월) -27.2% → (2024년 1월) -16.2%

* 직물(전년동월비): (2023년 11월) -5.1% → (12월) -4.3% → (2024년 1월) 9.4%

- 2월 수출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함께 설 연휴에 따른 가동일수 단축 및 수요 위축으로 전년동월비 11.9%의 큰 폭 감소로 전환

- 주요국 대상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2월 중국 춘절 휴가에 따른 생산 및 수요 약세로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

* 석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2023년 2월) 9.3(-4.3%) → (2024년 2월) 8.2(-11.9%)

* 2.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아세안) 2.2(-18.2%), (중국) 0.7(-36.3%), (베트남) 1.3(-17.8%)

- 1월 수입은 작년 상반기 국내 폴리에스테르 생산 중단 이후 중국산 원사 수입이 증가하고, 의류 내수 회복 및 수출 의류용 소재 수입 수요 확대로 1.3% 증가
 - * 섬유 수입액/증가율(억 달러): (2023년 1월) 16.6(-3.2%) → (2024년 1월) 16.8(1.3%)
 - * 1. 1~30일 수입액/증가율(억 달러): (중국) 6.8(+11.7%), (베트남) 4.2(-12.3%)

(9) 가전

□ 미국·유럽의 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은 소폭 감소

- 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26.2% 증가, 전월비로는 0.2% 증가
 - 1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 기저효과 영향 및 상반기 수요 회복 기대로 생산 증가폭이 더욱 확대
 - 영상음향기기, 조명기기 분야는 판매 호조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생활가전은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수요 회복에 대비한 생산 증가세를 유지
 - 판매량을 상회하는 생산 증가로 재고는 전년동월비 4.5% 증가,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28.1% 상승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3% 감소
 - 미국과 EU의 수요가 기저효과 및 구매력 감소의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수출은 감소로 전환
 - * 2월 대미국 수출 증가율(% , 전년동월비): (2022년) 20.3% → (2023년) 8.5% → (2024년) -20.3%(2. 1~25일)
 - * 2월 대EU 수출 증가율(% , 전년동월비): (2022년) 10.8% → (2023년) 17.1% → (2024년) -12.0%(2. 1~25일)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1.5일)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2.7% 증가
- 1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7.7% 증가
 -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48.7%), 진공청소기(51.7%), 에어컨(127.9%), 대형냉장고(41.4%) 등 품목의 수입이 대폭 증가
 - * 1월 대중국 수입 증가율(% , 전년동월비): (2022년) 16.3% → (2023년) -20.3% → (2024년) 22.5%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3	-0.8	-7.3	8.1	8.4	11.3	8.8	26.2	-
	생산(전기비)	-	-	1.0	3.7	0.9	5.8	3.6	0.2	-
	출하	-2.2	5.3	-6.3	19.4	16.0	11.0	33.7	14.0	-
	재고	0.4	-13.1	-18.1	-8.3	-13.2	-9.4	-19.8	4.5	-
	가동률	-2.5	2.1	-4.2	10.0	12.2	15.2	12.0	28.1	-
교역 동향	수출	-7.4	-1.0	-7.6	7.0	7.5	13.9	2.9	14.1	-4.3
	수입	-5.0	-5.0	-5.6	-8.5	5.5	12.4	-0.2	7.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10) 무선통신기기

□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다소 지연되며 2월 수출은 16.5% 감소

-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동월비 57.5% 크게 증가하였으나, 휴대폰 부품 수출이 31.9% 대폭 감소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전체 수출이 감소

- 국내 기업 AI 스마트폰의 글로벌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베트남 생산기지과 동남아 협력업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내 생산량과의 동조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

* IDC(2024. 2)는 2024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비 2.8% 증가하여 약 12억 대 수준의 판매를 전망

* 가트너(2024. 1)는 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2027년경 전체 출하량 7억 대에 접근하여 65%가량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1월 생산은 부품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8.6% 감소하고 출하도 2.3% 소폭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휴대폰 판매 증가로 24.3% 감소
 - 이는 1월 국내 기업의 플래그십 모델(갤럭시 S24) 출시에도 불구하고 해외생산 확대와 부품 수출 부진 등의 영향에 기인
 - 국내 기업의 인도 생산 비중과 부품의 현지 조달 비중이 증가할 전망
 - * 카날리시스(2024. 1)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2,840만 대를 판매하며 점유율(19.0%) 1위를 차지
- 1월 수입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8.6% 감소
 - 스마트폰 수입은 전년동월비 51.7% 감소한 반면, 부품은 54.7% 증가
 - * 미 애플의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 및 삼성전자 신제품(갤럭시 S24)의 부품수요 증가 영향이 1월 이후 지속된 것으로 추정
 - * 무선중계기 수입은 전년동월비 3.3% 증가

무선통신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4.0	-16.5	-10.4	-2.6	2.6	10.7	-8.6	-
	생산(전기비)	-	-	-27.2	14.3	6.7	8.5	-33.7	46.8	-
	출하	-2.2	-2.5	-6.3	-7.2	-3.9	31.5	-25.3	-2.3	-
	재고	3.7	17.0	21.1	35.9	17.0	6.6	17.0	-24.3	-
	가동률	-6.5	-9.0	-23.8	-18.0	-1.7	2.7	19.7	-14.1	-
교역 동향	수출	-10.4	-10.2	-20.8	-8.4	0.4	8.3	-3.0	-14.2	-16.5
	수입	-7.2	-9.6	-25.1	-15.8	4.2	42.8	-1.9	-18.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024년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11) 반도체

□ 반도체 수출 4개월 연속 증가

- 1월 반도체 생산지수는 137.5로 전년동월비 44.1%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기 시작, 연말부터는 증가폭이 확대 중
 - 가동률은 지난 3개월간 매월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출하 또한 지난해 12월 79.3%, 1월 62.1% 증가하는 등 매우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재고는 감소로 전환되어 가동률 증가, 생산 증가, 출하 증가 등 우리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로 전환
- 2월 수출액은 99억 4,6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66.7% 상승하며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시현
 - 2023년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향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
 - 대아세안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증가세 지속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4	-2.0	-15.8	13.8	34.5	40.7	47.0	44.1	-
	생산(전기비)	-	-	18.9	12.7	8.6	9.8	3.6	-8.6	-
	출하	2.9	8.9	-0.7	22.0	39.9	44.7	79.3	62.1	-
	재고	16.2	7.2	55.4	60.1	7.2	33.5	7.2	-16.6	-
	가동률	-4.6	-10.2	-20.8	5.6	20.1	29.4	26.5	28.4	-
교역 동향	수출	1.0	-23.7	-34.8	-22.5	10.4	12.9	21.8	56.2	66.7
	수입	21.8	-16.6	-16.8	-22.1	-16.4	-24.2	-8.2	6.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2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 우리 기업의 대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대표 품목인 D램과 낸드플래시의 단가가 상승 중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HBM 등 고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
- 반도체 수입은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1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1월부터 증가로 전환

(12) 디스플레이

□ OLED 수요 확대에 의한 생산 증가

- 1월 디스플레이 생산은 OLED 수요 확대에 전년동월비 5.1% 증가
 - 아이패드용 OLED 양산 시작에 따라 OLED 소재 부품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 LCD 감소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연중 생산 감소가 나타났으나, 올해는 OLED 전환에 따라 생산지표의 확대추세가 지속 이어질 전망
- 2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패널 가격 상승으로 20.2% 증가하였으며,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4.7	-20.5	-20.8	-18.8	-7.3	-9.9	-8.8	5.1	-
	생산(전기비)	-	-	3.4	-6.3	6.1	-3.8	-7.5	3.2	-
	출하	-17.5	-19.1	-20.1	-18.5	-4.6	-10.8	-9.1	1.2	-
	재고	-24.9	0.5	-39.9	-5.4	0.5	13.9	0.5	-16.0	-
	가동률	-6.5	9.3	18.0	9.0	11.2	8.2	0.2	9.0	-
교역 동향	수출	-1.1	-12.1	-16.5	1.2	10.8	5.9	10.9	2.1	20.2
	수입	30.7	-4.9	-19.7	-0.8	38.5	37.3	17.6	59.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2월 및 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자동차·IT기기 등 고부가 패널 시장 확대에 LCD 수출은 39.2%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 시현
- OLED 수출은 비수기 진입에도 패널 대형화에 따른 패널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12.7% 증가
- 1분기 내 태블릿용 OLED 생산 확대에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아이패드용 OLED 양산이 시작되었으나, 주요 품목인 스마트폰용 OLED에 비해 그 규모가 제한적으로 소폭의 생산 및 수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
 - 한편, 디스플레이 생산 증가는 1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나, 수출은 2분기부터 의미 있는 증가세가 전망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1월 생산, 전년동월비 4.4% 증가

- 1월 생산은 4.4%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이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서비스산업 내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부진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비 0.9%로 소폭 증가
 - 분야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과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전년동월비 각각 5.7%, 4.9% 증가
 - 반면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고물가와 가계의 소비심리 약화로 음·식료품 소매업(-45.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13.3%)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7.2%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서비스 총지수	105.2	112.4	115.2	115.1	120.9	116.9	130.5	113.9
상승률	5.0	7.0	3.1	2.3	1.7	2.5	0.9	4.4
전기비	-	-	-	1.0	0.3	0.0	1.1	0.1
도·소매	4.3	2.7	-0.7	-2.4	-1.5	0.3	-0.8	0.9
운수·창고	4.2	18.4	12.5	12.2	10.2	8.7	11.6	16.7
숙박·음식점	1.9	16.9	0.8	-4.3	-3.6	-3.4	-2.2	0.3
정보통신	12.2	1.5	-0.1	0.6	2.8	2.0	3.6	5.9
금융·보험	8.3	8.6	6.1	5.4	-0.2	1.6	-4.7	3.1
부동산	2.3	8.0	3.2	5.0	1.8	1.0	0.8	5.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8	2.3	1.3	1.0	1.3	3.7	0.1	5.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3	5.3	5.0	4.9	5.8	7.9	3.0	6.8
교육	1.5	1.2	0.4	-0.2	0.5	1.0	0.4	0.3
보건·사회복지	5.1	7.7	3.6	4.7	3.6	3.3	4.6	4.5
예술·스포츠·여가	15.4	43.7	6.9	-0.5	3.4	7.2	1.3	4.4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9	4.4	4.1	2.7	2.9	6.4	-0.5	5.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2.4	-4.6	-1.6	-1.9	-3.3	-2.1	-4.9	2.8
지식서비스	6.1	4.8	2.8	2.8	1.4	2.2	0.1	3.5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운수·창고업은 수상 운송업(55.3%), 항공 운송업(32.6%)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생산이 16.7% 증가
 - 수상 운송업은 내항보다 외항 운송업(56.8%)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항공 운송업은 해외 여행객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항공 여객운송업(33.6%)이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방한객의 더딘 회복세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숙박업(-0.1%)과 음식점 및 주점업(0.3%)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0.3% 소폭 증가

- 숙박업의 경우 호텔업 생산이 10.0% 증가하였으나, 여관업이 5.1% 감소하며 숙박업 형태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지속
- 음식점업은 외국식 음식점업(6.9%)과 기관 구내식당업(6.6%)을 제외한 세부 업종의 생산량이 전년동월비 감소하였으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주점업(-6.8%)의 감소세가 지속
- 정보통신업은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방송업 등의 실적 개선으로 5.9% 증가
 - 기타정보서비스업의 생산이 전년동월비 62.7% 증가하며 정보서비스업의 실적 개선을 주도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9%)과 방송업(6.0%)이 증가한 반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4.4%)은 제작비 상승 등의 여파로 여전히 감소세 지속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23.8%)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3.1% 증가
 - 금융업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9.1%), 기타 금융업(6.4%)의 증가로 전년동월비 0.9% 증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도 금융지원 서비스업(27.3%)과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11.8%)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23.8% 증가
 - 반면, 보험 및 연금업은 보험업(-10.6)의 감소와 재보험업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5.6% 감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각각 5.4%, 6.8% 증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3.2%)과 광고업(-1.3%)을 제외한 전 업종이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법무관련 서비스업(19.4%),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18.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3.5%) 등이 크게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 임대서비스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8.5%)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4.5%), 임대업(부동산 제외) 등 전 업종이 전년동월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이 전년동월비 117.6% 크게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보건업(3.8%)과 사회복지 서비스업(7.0%)의 증가로 전년 동월비 4.5% 증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노인 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보건업의 실적을 견인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각각 4.4%, 5.4%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전년동월비 12.2%로 크게 증가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협회 및 단체(4.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3.8%), 기타 개인서비스업(6.8%) 등 전 업종이 증가

(2) 고용

□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0만 5,000명(1.6%) 증가

- 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6%) 등의 증가로 약 30만 5,000명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0만 4,000명(4.0%) 증가하였으며, 그 뒤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7만 3,000명(5.6%), 운수 및 창고업은 6만 6,000명(4.1%) 증가
- 정보통신업(4만 9,000명, 4.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 2,000명, 8.9%)도 전년동월비 증가
-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4만 5,000명(-3.2%), 2만 8,000명(-5.0%), 1만 3,000명(-0.8%) 감소
 - 교육서비스업은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동산업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
- 지식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하며 19만 8,000명(2.6%)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총취업자 수	19,173	19,752	20,138	20,267	28,518	20,277	19,968	19,820
증감률	1.6	3.0	2.0	1.8	1.5	1.3	1.2	1.6
전기비	-	-	-	-0.2	-0.4	-0.2	-1.5	-0.7
도·소매	-4.3	-1.2	-1.1	-1.4	0.2	0.2	0.0	0.0
운수·창고	7.0	4.4	-0.7	-0.8	1.8	2.1	1.6	4.1
숙박·음식점	-2.1	4.0	5.2	4.8	1.1	0.3	0.7	-0.3
정보통신	6.4	8.9	5.8	4.7	7.3	5.4	8.9	4.8
금융·보험	2.8	-3.3	1.1	0.0	0.9	1.2	0.1	-1.6
부동산	2.7	4.0	-3.3	-3.8	-5.5	-5.4	-5.8	-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7	5.7	5.4	4.8	5.4	6.8	3.6	5.6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3.7	1.9	0.6	1.7	1.2	1.9	-1.0	-3.2
공공행정·국방	2.8	6.1	2.0	1.4	2.6	2.1	3.0	6.6
교육	2.3	3.4	-0.3	0.1	-2.3	-3.0	-1.8	-0.8
보건·사회복지	8.5	7.1	5.3	4.8	3.4	3.0	3.5	4.0
예술·스포츠·여가	-5.8	3.2	6.2	3.8	5.6	5.9	4.8	8.9
협회·수리·개인서비스	-4.5	-1.4	0.9	1.5	-0.4	-1.5	-0.5	0.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5	-8.9	-4.9	2.1	-2.1	0.7	-2.0	-0.7
지식서비스	5.4	5.0	3.6	3.2	2.6	2.3	2.5	2.6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23만 3,000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비 1.3%로 소폭 증가
 -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44만 9,000명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
 - 32만 2,000명(2023년 7월) → 33만 7,000명(8월) → 33만 명(9월) → 35만 5,000명(10월) → 23만 8,000명(11월) → 20만 4,000명(12월) → 23만 3,000명(2024년 1월)

(3) 서비스수지

□ 1월 서비스수지, 26억 5,700만 달러 적자

- 1월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가공서비스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기타사업서비스수지 등의 적자 규모가 확대, 특히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 규모가 지난달에 비해 2억 7,000만 달러 증가
- 가공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8,0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유지보수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3/4	4/4	11월	12월	1월
서비스수지	-5,287	-7,253	-25,660	-7,332	-6,026	-2,211	-2,535	-2,657
가공서비스	-6,123	-6,206	-6,793	-1,819	-1,731	-569	-620	-701
유지보수	-951	-1,655	-1,935	-490	-602	-206	-205	-103
운송	12,875	13,097	-1,546	-34	-1,005	-356	-331	-189
여행	-7,026	-8,369	-12,527	-3,549	-3,219	-1,282	-1,342	-1,467
건설	4,270	4,840	4,504	930	1,261	374	522	408
보험	-362	-22	-219	-93	213	54	68	-8
금융	1,678	695	1,551	323	522	134	201	140
지식재산권사용료	-3,046	-3,742	-3,296	-977	-352	236	-248	-519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2,842	1,039	3,121	654	918	171	425	346
기타사업서비스	-9,573	-7,029	-9,223	-2,434	-2,351	-853	-1,052	-519
개인, 문화, 여가	783	662	892	167	250	27	125	38
정부	-654	-564	-190	-11	68	59	-78	-82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운송수지는 항공운송수지의 흑자 규모가 지난달에 비해 약 1억 9,000만 달러 감소하였으나, 해상운송수지 적자 규모가 약 3억 달러 감소하며 전체 운송수지 적자 규모 감소
- 여행수지는 14억 6,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7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
 - 여행수입과 직결되는 외래 관광객의 방한 수요가 감소하고,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확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지급이 1억 8,0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은 약 8,000만 달러 이상 감소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확대
 - 특히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입이 1억 1,000만 달러,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수입이 9,000만 달러 감소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 전환을 주도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달에 비해 약 7,900만 달러 감소
 - 통신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컴퓨터서비스수지, 정보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각각 약 4,000만 달러, 5,000만 달러 감소하며 전체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감소 주도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5억 3,000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감소
 -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연구개발서비스수지,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도 각각 1억 1,000만 달러, 7,000만 달러 이상 증가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1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14.4% 증가
 - 경기(35.1%), 경남(16.6%), 대전(13.3%)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강원(-0.4%)이 유일하게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8.2	1.4	-2.7	-7.6	-2.0	5.1	2.0	6.8	6.6	14.4
수도권	서울	9.1	-2.0	-8.0	-5.0	0.2	-4.6	-7.7	-6.7	0.2	2.8
	인천	13.2	1.0	0.3	-1.1	-2.3	1.3	3.1	3.1	-2.4	12.9
	경기	14.3	4.1	-4.5	-16.6	-2.6	18.4	8.4	20.7	25.9	35.1
충청권	대전	4.2	-1.4	-3.4	-4.9	-7.2	-1.6	-5.5	0.2	0.4	13.3
	세종	10.4	3.3	-5.8	1.7	-3.4	-8.2	-5.9	-5.2	-13.0	10.8
	충북	14.4	-0.8	-2.1	-7.9	-7.6	5.4	7.4	3.4	5.5	9.1
	충남	12.0	-0.2	-3.4	-4.1	-4.5	-1.9	-2.2	-1.8	-1.8	1.4

(계속)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호남권	광주	7.3	3.2	2.0	-2.7	-1.3	-2.2	-3.7	-1.5	-1.6	10.8
	전북	7.8	2.9	-5.3	-2.4	-6.8	-9.9	-10.4	-8.6	-10.7	7.4
	전남	8.0	-2.9	-1.7	-2.5	-2.1	2.0	0.8	2.6	2.8	1.3
대경권	대구	11.5	5.0	-0.8	-1.0	-6.2	-5.2	-1.2	-0.7	-8.0	7.6
	경북	4.8	-1.4	-4.2	-5.7	-7.7	-2.2	-5.0	1.0	-2.9	5.4
동남권	부산	2.4	9.7	-3.0	-9.1	-15.8	-4.3	-8.7	-4.4	0.4	11.0
	울산	6.6	-1.0	-1.3	-2.8	0.4	-2.5	-0.3	-4.1	-3.2	9.4
	경남	3.9	5.7	2.9	-2.5	0.8	1.9	0.9	4.4	0.3	16.6
강원권		1.7	5.7	1.9	1.0	1.4	-4.8	-3.3	2.6	-13.2	-0.4
제주권		5.4	6.7	-2.6	0.7	-3.1	-6.9	-8.8	-6.7	-5.3	7.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2) 고용

- 1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74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4% 증가
 - 대전(-1.4%), 부산(-1.4%), 전남(-1.0%)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충북(3.7%), 광주(3.1%), 서울(2.7%)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27,273 (1.4)	28,089 (3.0)	28,416 (1.2)	28,693 (1.2)	28,687 (0.9)	28,518 (1.1)	28,764 (1.2)	28,698 (1.0)	28,093 (1.0)	27,743 (1.4)
수도권	서울	5,055 (0.1)	5,113 (1.1)	5,174 (1.2)	5,196 (1.2)	5,188 (1.1)	5,215 (1.7)	5,223 (2.3)	5,230 (1.8)	5,192 (1.1)	5,195 (2.7)
	인천	1,563 (0.2)	1,614 (3.3)	1,655 (2.5)	1,663 (3.0)	1,684 (2.7)	1,660 (1.2)	1,672 (1.6)	1,661 (0.4)	1,647 (1.5)	1,639 (2.6)
	경기	7,150 (3.5)	7,597 (6.3)	7,653 (0.7)	7,694 (-0.1)	7,727 (0.4)	7,715 (1.4)	7,748 (1.2)	7,752 (1.6)	7,645 (1.5)	7,483 (1.1)

(계속)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충청권	대전	785 (0.6)	794 (1.1)	797 (0.4)	800 (1.4)	798 (0.1)	797 (-1.0)	803 (-0.5)	804 (0.0)	783 (-2.4)	778 (-1.4)
	세종	185 (2.8)	197 (6.5)	208 (5.6)	212 (6.5)	211 (5.0)	207 (2.5)	211 (4.5)	207 (1.5)	203 (1.0)	203 (1.5)
	충북	897 (0.8)	926 (3.2)	939 (1.4)	953 (1.4)	951 (1.4)	943 (1.4)	954 (1.3)	946 (0.5)	929 (2.5)	907 (3.7)
	충남	1,193 (1.4)	1,226 (2.8)	1,248 (1.8)	1,278 (3.0)	1,278 (0.9)	1,256 (0.9)	1,280 (-0.2)	1,285 (1.4)	1,204 (1.6)	1,151 (0.0)
호남권	광주	745 (-0.4)	750 (0.7)	769 (2.5)	770 (2.8)	773 (2.5)	773 (2.1)	776 (1.8)	780 (2.1)	763 (2.4)	776 (3.1)
	전북	953 (2.3)	968 (1.6)	983 (1.5)	990 (0.4)	1,002 (1.1)	986 (2.6)	999 (1.4)	1,003 (2.2)	955 (4.0)	950 (2.3)
	전남	985 (1.1)	1,010 (2.5)	1,019 (0.9)	1,041 (1.7)	1,024 (0.3)	1,007 (-0.9)	1,018 (-0.8)	1,016 (-1.7)	987 (-0.2)	970 (-1.0)
대경권	대구	1,217 (2.8)	1,228 (0.9)	1,247 (1.5)	1,265 (2.6)	1,264 (2.0)	1,237 (0.9)	1,261 (2.2)	1,238 (0.7)	1,214 (0.1)	1,205 (0.8)
	경북	1,410 (-0.6)	1,462 (3.7)	1,462 (0.0)	1,497 (0.3)	1,465 (-1.4)	1,458 (-0.4)	1,486 (-0.5)	1,475 (-0.6)	1,414 (-0.1)	1,400 (1.0)
동남권	부산	1,657 (1.0)	1,679 (1.3)	1,691 (0.7)	1,697 (1.0)	1,705 (0.5)	1,684 (-0.5)	1,701 (0.6)	1,683 (-0.8)	1,669 (-1.2)	1,654 (-1.4)
	울산	555 (-0.9)	566 (2.0)	572 (1.1)	574 (0.9)	573 (0.2)	575 (0.7)	575 (0.3)	580 (0.7)	570 (1.1)	560 (0.2)
	경남	1,732 (0.2)	1,740 (0.5)	1,760 (1.1)	1,792 (1.5)	1,771 (1.5)	1,763 (1.3)	1,783 (2.0)	1,772 (0.7)	1,735 (1.3)	1,716 (2.1)
강원권		809 (1.8)	818 (1.1)	841 (2.8)	871 (3.9)	869 (2.5)	836 (2.0)	867 (2.4)	857 (1.9)	784 (1.4)	755 (1.9)
제주권		383 (1.3)	402 (5.0)	401 (-0.2)	401 (1.0)	405 (0.2)	406 (-1.7)	408 (-1.9)	411 (-1.2)	400 (-2.0)	401 (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1월 전국 수출은 전년동월비 18.0% 증가한 547억 달러를 기록
 - 경기(41.6%), 세종(31.6%), 경남(29.0%)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부산(-9.7%), 충북(-8.6%), 전북(-8.1%)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25.7	6.1	-7.5	-12.0	-9.7	5.7	4.9	7.3	5.0	18.0
수도권	서울	28.5	-2.4	-0.8	-3.0	1.0	6.2	9.2	9.6	0.3	11.2
	인천	25.7	14.5	-0.9	5.7	-9.8	7.1	3.6	13.4	4.4	21.4
	경기	19.7	-0.3	-5.6	-15.9	-5.2	20.3	19.1	27.5	15.0	41.6
충청권	대전	-1.3	-5.4	-8.7	-11.6	-17.3	9.9	16.4	-5.7	18.6	20.1
	세종	17.8	5.8	-23.1	-31.5	-23.4	0.8	-13.0	7.8	11.7	31.6
	충북	15.7	12.7	-14.1	-17.0	-21.0	-8.9	-5.3	-3.8	-16.7	-8.6
	충남	30.9	3.2	-26.1	-31.1	-27.3	-7.2	-21.2	-6.3	8.4	13.4
호남권	광주	20.6	8.1	-1.3	-3.4	0.2	-7.4	-8.4	-9.8	-3.6	4.1
	전북	33.9	5.1	-14.2	-8.7	-15.0	-19.3	-14.6	-16.6	-26.3	-8.1
	전남	59.8	14.2	-8.1	-19.8	-14.6	8.7	13.0	18.8	-5.7	26.0
대경권	대구	26.6	34.1	3.5	12.9	-8.4	-13.3	-10.9	-11.4	-17.4	-2.5
	경북	19.5	5.8	-12.4	-16.0	-6.8	-7.7	-5.5	-2.2	-15.3	-3.3
동남권	부산	30.9	9.3	-6.7	-5.2	-9.7	-5.0	-9.5	-4.4	-1.1	-9.7
	울산	32.4	21.3	-3.0	-11.2	-6.1	5.5	10.0	4.1	3.0	18.5
	경남	9.4	-7.2	15.1	25.3	6.4	31.8	47.7	3.1	44.2	29.0
강원권		34.9	0.8	-1.5	-6.9	15.5	5.1	-0.9	5.9	10.6	7.0
제주권		47.1	-13.6	-1.5	-22.0	15.0	28.3	38.5	15.8	33.3	23.1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2.8%), 고용 증가(2.7%), 수출 증가(11.2%)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6.0%), 식료품(-6.0%)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9.1%)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0.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9%)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5.0%)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39.4%), 자동차부품(9.4%)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인천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2.9%),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21.4%)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2.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0.7%), 기타 기계 및 장비(20.6%)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8%), 제조업(2.6%)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31.2%), 자동차(30.0%), 농약 및 의약품(5.4%)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경기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35.1%), 고용 증가(1.1%), 수출 증가(41.6%)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57.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6	-0.1	-17.2	-18.2	-7.4	-20.2	-23.6	-22.1	-14.0	-6.0
		전자부품 외	9.0	-3.9	-7.0	18.6	-5.1	-7.3	-14.9	-4.1	-3.1	9.1
		식료품	-2.3	4.5	16.2	21.8	6.3	22.5	44.7	27.8	0.6	-6.0
	인천	기계 및 장비	62.9	-12.3	-7.4	-4.7	-30.2	1.6	2.4	-0.1	2.7	20.6
		전자부품 외	5.4	14.5	20.6	11.1	41.5	9.9	26.0	16.1	-11.1	22.9
		의약품 외	26.2	14.9	-9.5	-12.2	-11.6	4.9	6.8	9.4	-2.2	20.7
	경기	전자부품 외	23.3	7.8	-4.1	-24.0	-1.2	43.0	19.5	50.0	61.4	57.3
		기계 및 장비	14.2	3.7	-19.3	-18.2	-20.0	-20.0	-20.4	-31.4	-9.9	31.7
		고무 및 플라스틱	0.6	-3.6	-5.4	-9.5	-2.6	-3.3	-6.7	-1.6	-1.5	19.1
고 용	서울	농림·어업	5 (-28.6)	6 (20.0)	4 (-33.3)	5 (-28.6)	4 (-42.9)	4 (-33.3)	4 (-33.3)	4 (-33.3)	4 (-33.3)	6 (20.0)
		제조업	442 (-1.1)	450 (1.8)	473 (5.1)	467 (4.0)	478 (4.6)	494 (12.3)	487 (10.9)	495 (13.0)	500 (12.9)	498 (10.7)
		SOC·서비스	4,609 (0.3)	4,658 (1.1)	4,696 (0.8)	4,724 (1.0)	4,706 (0.8)	4,717 (0.8)	4,732 (1.5)	4,731 (0.7)	4,689 (0.1)	4,691 (1.9)
	인천	농림·어업	9 (-35.7)	2 (-77.8)	2 (0.0)	3 (50.0)	2 (0.0)	0 (-100.0)	1 (0.0)	0 (-100.0)	1 (-50.0)	2 (0.0)
		제조업	312 (-3.7)	322 (3.2)	315 (-2.2)	314 (-2.8)	323 (0.3)	314 (-2.2)	313 (-4.9)	312 (-1.0)	319 (0.0)	317 (2.6)
		SOC·서비스	1,241 (1.6)	1,289 (3.9)	1,338 (3.8)	1,346 (4.5)	1,359 (3.4)	1,345 (2.0)	1,359 (3.4)	1,349 (0.9)	1,328 (2.1)	1,322 (2.8)
	경기	농림·어업	107 (0.0)	131 (22.4)	147 (12.2)	168 (15.1)	176 (8.6)	152 (19.7)	185 (18.6)	172 (20.3)	100 (20.5)	92 (29.6)
		제조업	1,344 (4.8)	1,468 (9.2)	1,421 (-3.2)	1,431 (-3.1)	1,424 (-4.4)	1,383 (-6.7)	1,381 (-8.1)	1,385 (-6.9)	1,382 (-5.3)	1,351 (-6.1)
		SOC·서비스	5,699 (3.3)	5,999 (5.3)	6,084 (1.4)	6,094 (0.3)	6,126 (1.4)	6,179 (3.1)	6,181 (3.0)	6,194 (3.2)	6,161 (2.9)	6,039 (2.5)
수 출	서울		68,538 (28.5)	66,904 (-2.4)	66,342 (-0.8)	17,202 (-3.0)	16,607 (1.0)	16,329 (6.2)	5,412 (9.2)	5,603 (9.6)	5,314 (0.3)	5,197 (11.2)
	인천		47,395 (25.7)	54,309 (14.6)	53,802 (-0.9)	13,794 (5.7)	13,282 (-9.8)	14,275 (7.1)	4,691 (3.6)	5,039 (13.4)	4,545 (4.4)	4,820 (21.4)
	경기		137,832 (19.7)	137,460 (-0.3)	129,741 (-5.6)	30,485 (-15.9)	32,806 (-5.2)	37,423 (20.3)	11,532 (19.1)	12,721 (27.5)	13,170 (15.0)	12,147 (41.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3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19.1%)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6.1%)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29.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5%)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128.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76.9%), 자동차(2.6%)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2) 충청권

□ 대전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3.3%), 고용 감소(-1.4%), 수출 증가(20.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6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3.7%), 담배 제조업(11.9%)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4.0%)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1%)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12.6%), 원동기 및 펌프(-9.6%)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18.6%), 계측제어분석기(202.6%)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세종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0.8%), 고용 증가(1.5%), 수출 증가(31.6%)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1%)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34.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9.3%)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제조업(6.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17.6%)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타화학공업제품(3,587.1%), 기구부품(48.9%)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2.6	-1.8	2.5	2.2	-2.0	-7.4	-3.5	2.2	-23.8	11.9
		화학제품 외	-10.0	-21.2	-19.5	-8.8	2.9	-8.8	-24.1	6.7	-10.6	23.7
		기계 및 장비	1.2	8.1	8.0	11.7	-3.0	22.1	15.9	35.9	15.9	61.1
	세종	전자부품 외	30.8	7.6	-36.5	-41.9	-39.0	-13.5	-32.3	-6.9	9.9	19.3
		화학제품 외	3.8	3.4	-18.6	-2.8	-11.4	-42.6	-9.4	-27.5	-63.6	-13.1
		식료품	2.5	-1.5	7.1	13.9	4.2	1.9	13.0	5.7	-11.0	34.0
	충북	전자부품 외	32.4	-5.1	-7.4	-13.8	-5.6	39.3	58.5	18.2	47.9	35.9
		화학제품 외	19.3	-38.1	-0.9	-13.1	0.5	12.3	8.3	18.3	10.5	19.5
		식료품	4.5	2.7	-3.7	-4.1	-3.3	-2.2	-0.7	0.9	-6.9	12.3
	충남	전자부품 외	27.2	-7.9	-14.6	-15.5	-7.2	-8.8	-9.9	-8.9	-7.5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	7.9	20.9	14.7	6.7	10.7	17.0	10.2	5.3	-12.2
		화학제품 외	9.3	-4.0	-9.2	-16.7	-6.2	0.1	-2.6	-0.5	3.6	2.2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9 (12.5)	8 (-11.1)	8 (-11.1)	9 (0.0)	8 (0.0)	9 (12.5)	8 (0.0)	7 (16.7)	7 (16.7)
		제조업	91 (-13.3)	78 (-14.3)	77 (-1.3)	78 (0.0)	76 (0.0)	77 (-1.3)	75 (-5.1)	77 (1.3)	79 (2.6)	78 (4.0)
		SOC·서비스	684 (2.5)	707 (3.4)	712 (0.7)	714 (1.7)	713 (0.1)	711 (-1.3)	719 (0.0)	719 (-0.3)	696 (-3.2)	693 (-2.1)
	세종	농림·어업	9 (12.5)	8 (-11.1)	7 (-12.5)	9 (-10.0)	8 (0.0)	7 (0.0)	8 (0.0)	7 (-12.5)	5 (-16.7)	4 (0.0)
		제조업	24 (0.0)	28 (16.7)	30 (7.1)	30 (7.1)	30 (3.4)	31 (3.3)	31 (6.9)	31 (0.0)	31 (0.0)	31 (6.9)
		SOC·서비스	153 (3.4)	161 (5.2)	171 (6.2)	173 (6.8)	172 (4.9)	170 (3.7)	172 (4.9)	169 (2.4)	168 (2.4)	168 (0.6)
	충북	농림·어업	96 (3.2)	101 (5.2)	106 (5.0)	115 (8.5)	119 (9.2)	103 (6.2)	116 (10.5)	105 (4.0)	87 (2.4)	81 (3.8)
		제조업	212 (5.5)	198 (-6.6)	197 (-0.5)	201 (1.5)	198 (2.1)	199 (5.3)	194 (3.2)	198 (4.8)	204 (8.5)	194 (2.6)
		SOC·서비스	588 (-1.3)	626 (6.5)	635 (1.4)	637 (0.5)	634 (-0.2)	642 (-0.3)	644 (-0.8)	642 (-1.2)	638 (0.8)	632 (3.9)
	충남	농림·어업	177 (9.3)	179 (1.1)	169 (-5.6)	189 (-10.4)	198 (-3.4)	170 (5.6)	199 (1.0)	191 (8.5)	120 (9.1)	98 (-2.0)
		제조업	257 (2.8)	252 (-1.9)	272 (7.9)	278 (14.9)	273 (7.5)	271 (5.0)	269 (3.5)	274 (6.2)	269 (4.7)	275 (4.6)
		SOC·서비스	760 (-0.5)	795 (4.6)	807 (1.5)	811 (2.9)	807 (-0.1)	816 (-1.1)	812 (-1.7)	820 (-1.6)	815 (-0.4)	778 (-1.3)
수출	대전	4,953 (-1.3)	4,686 (-5.4)	4,279 (-8.7)	1,145 (-11.6)	935 (-17.3)	1,130 (9.9)	405 (16.4)	316 (-5.7)	409 (18.6)	377 (20.1)	
	세종	1,532 (17.8)	1,621 (5.8)	1,246 (-23.1)	300 (-31.5)	314 (-23.4)	359 (0.8)	120 (-13.0)	124 (7.8)	115 (11.7)	129 (31.6)	
	충북	28,766 (15.7)	32,428 (12.7)	27,854 (-14.1)	6,973 (-17.0)	6,895 (-21.0)	6,537 (-8.9)	2,115 (-5.3)	2,272 (-3.8)	2,150 (-16.7)	2,191 (-8.6)	
	충남	104,122 (30.9)	107,489 (3.2)	79,392 (-26.1)	19,531 (-31.1)	19,713 (-27.3)	21,440 (-7.2)	6,695 (-21.2)	6,968 (-6.3)	7,777 (8.4)	6,301 (13.4)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충북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9.1%), 고용 증가(3.7%), 수출 감소(-8.6%)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9.5%), 식료품 제조업(12.3%)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9%), 제조업(2.6%)의 고용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목인 반도체(39.2%)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65.9%), 건전지 및 축전지(-43.9%)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충남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4%), 고용 소폭 증가(0.0%), 수출 증가(13.4%)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1%)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2%)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4.6)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3%)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주력수출품 중 반도체(37.1%), 석유제품(21.6%)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5.7%)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3) 호남권

□ 광주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0.8%), 고용 증가(3.1%), 수출 증가(4.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4.8%)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48.9%), 전기 장비(8.5%)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23.5%), 제조업(4.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4%)의 고용이 모두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	9.7	30.5	18.9	11.2	10.6	10.1	8.8	12.9	48.9
		전기장비	15.7	-7.6	-16.7	-24.7	-1.9	-14.9	-23.5	-10.3	-10.2	8.5
		기계 및 장비	10.6	1.0	-4.1	-6.5	0.6	-6.4	-4.5	-4.5	-10.7	-24.8
	전 북	식료품	-1.2	2.9	-6.4	-6.8	-6.9	-4.0	-0.5	-2.9	-8.6	4.8
		화학제품 외	-1.5	-4.3	-7.0	-12.4	-6.9	-4.5	-7.9	-1.8	-3.9	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2	14.2	2.2	12.9	-6.7	-13.6	-12.5	-10.6	-17.7	40.6
	전 남	화학제품 외	11.5	-6.5	-2.5	-5.0	-3.3	9.2	7.4	14.9	6.0	3.1
		1차 금속 제조업	7.6	-2.9	-1.0	0.8	-3.1	-1.0	-0.7	-6.7	4.7	5.8
		석유정제품	11.1	3.8	-0.4	-1.3	-1.0	-1.1	-0.6	-0.2	-2.5	1.8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2 (-25.0)	15 (25.0)	21 (40.0)	21 (31.3)	22 (37.5)	22 (46.7)	22 (57.1)	22 (46.7)	21 (23.5)	21 (23.5)
		제조업	100 (-6.5)	104 (4.0)	102 (-1.9)	104 (-2.8)	104 (-1.0)	101 (-1.0)	101 (-1.9)	100 (-2.0)	101 (-1.0)	103 (4.0)
		SOC·서비스	632 (1.1)	631 (-0.2)	646 (2.4)	645 (3.0)	647 (2.1)	650 (1.7)	652 (1.1)	657 (1.5)	641 (2.4)	652 (2.4)
	전 북	농림·어업	169 (-5.6)	172 (1.8)	166 (-3.5)	175 (-2.2)	175 (-5.9)	163 (-4.1)	174 (-4.9)	169 (-4.0)	147 (-2.6)	144 (-1.4)
		제조업	120 (-2.4)	119 (-0.8)	128 (7.6)	127 (12.4)	132 (12.8)	131 (5.6)	132 (7.3)	131 (4.8)	129 (5.7)	128 (4.1)
		SOC·서비스	663 (5.2)	677 (2.1)	688 (1.6)	687 (-0.9)	695 (1.0)	691 (3.6)	692 (2.1)	703 (3.5)	679 (5.4)	679 (2.9)
	전 남	농림·어업	221 (7.8)	234 (5.9)	223 (-4.7)	230 (-2.1)	228 (-5.4)	216 (-9.2)	224 (-6.7)	222 (-7.5)	204 (-12.8)	197 (-12.1)
		제조업	97 (-8.5)	99 (2.1)	102 (3.0)	99 (-1.0)	102 (3.0)	106 (11.6)	105 (12.9)	107 (11.5)	105 (8.2)	107 (5.9)
		SOC·서비스	667 (0.8)	678 (1.6)	694 (2.4)	712 (3.5)	694 (2.1)	685 (0.3)	690 (-0.4)	687 (-1.7)	678 (2.9)	666 (1.5)
수 출	광주		16,604 (20.6)	17,946 (8.1)	17,717 (-1.3)	4,540 (-3.4)	4,714 (0.2)	4,037 (-7.4)	1,330 (-8.4)	1,395 (-9.8)	1,312 (-3.6)	1,488 (4.1)
	전북		7,820 (33.9)	8,223 (5.2)	7,052 (-14.2)	1,959 (-8.7)	1,712 (-15.0)	1,502 (-19.3)	509 (-14.6)	517 (-16.6)	476 (-26.3)	523 (-8.1)
	전남		43,294 (59.8)	49,438 (14.2)	45,410 (-8.1)	10,735 (-19.8)	11,235 (-14.6)	11,829 (8.7)	4,410 (13.0)	4,059 (18.8)	3,360 (-5.7)	4,757 (26.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23.4%), 냉장고(-6.6%)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6%)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전북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7.4%), 고용 증가(2.3%), 수출 감소(-8.1%)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40.6%), 식료품(4.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7%)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1.4%)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4.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16.4%), 자동차(8.4%), 합성수지(1.6%)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전남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3%), 고용 감소(-1.0%), 수출 증가(26.0%)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5.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1%), 석유정제품(1.8%)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5.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2.1%)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370.4%), 석유제품(10.2%), 합성수지(5.4%)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4) 대경권

□ 대구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7.6%), 고용 소폭 증가(0.8%), 수출 감소(-2.5%)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대구	금속가공제품	7.2	-3.2	-0.5	3.2	-5.3	-4.0	-6.5	-7.8	2.9	-2.3
		기계 및 장비	31.1	11.0	-8.6	-5.8	-16.6	-17.9	-6.4	3.5	-22.5	-1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7	9.0	8.2	14.8	8.9	-0.9	0.0	1.7	-4.5	14.8
	경북	전자부품 외	7.3	-7.4	-10.8	-18.5	-14.9	-9.6	-16.4	-5.7	-4.1	-7.5
		1차 금속	1.8	-16.7	4.6	-5.3	7.6	42.9	86.4	38.5	16.6	16.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16.9	10.7	16.3	5.1	-1.8	-1.3	-0.7	-3.4	14.6
고 용	대구	농림·어업	15 (-51.6)	10 (-33.3)	11 (10.0)	12 (0.0)	14 (27.3)	12 (20.0)	13 (18.2)	11 (0.0)	11 (37.5)	12 (100.0)
		제조업	239 (3.5)	240 (0.4)	242 (0.8)	243 (1.7)	243 (-0.4)	241 (0.4)	243 (3.4)	243 (0.4)	238 (-1.7)	239 (0.4)
		SOC·서비스	963 (4.3)	978 (1.6)	994 (1.6)	1,011 (3.0)	1,008 (2.4)	984 (0.8)	1,004 (1.6)	983 (0.6)	965 (0.2)	954 (0.2)
	경북	농림·어업	274 (4.6)	280 (2.2)	285 (1.8)	302 (5.6)	291 (-0.3)	285 (-2.7)	298 (-2.9)	288 (-6.2)	268 (0.8)	246 (0.8)
		제조업	283 (-3.1)	293 (3.5)	260 (-11.3)	258 (-13.4)	252 (-14.9)	263 (-6.1)	258 (-10.4)	263 (-4.4)	267 (-3.6)	264 (-2.2)
		SOC·서비스	853 (-1.2)	888 (4.1)	917 (3.3)	936 (3.1)	923 (2.9)	911 (2.2)	930 (3.7)	923 (2.3)	879 (0.6)	890 (1.9)
수 출	대구		7,934 (26.6)	10,642 (34.1)	11,017 (3.5)	2,994 (12.9)	2,564 (-8.4)	2,462 (-13.3)	776 (-10.9)	885 (-11.4)	801 (-17.4)	819 (-2.5)
	경북		44,314 (19.5)	46,888 (5.8)	41,060 (-12.4)	9,869 (-16.0)	10,237 (-6.8)	10,613 (-7.7)	3,635 (-5.5)	3,726 (-2.2)	3,252 (-15.3)	3,349 (-3.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0.5%), 금속가공제품(-2.3%)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14.8%)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2%), 제조업(0.4%)의 고용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41.6%), 자동차부품(10.0%)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46.2%)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경북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5.4%), 고용 증가(1.0), 수출 감소(-3.3%)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7.5%)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1차 금속 제조업(16.3%), 자동차 및 트레일러(14.6%)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2.2%)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9%)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
 - 수출 상위 품목인 철강판(42.8%)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31.3%), 무선통신기기(-30.6%)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5) 동남권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1.0%), 고용 감소(-1.4%), 수출 감소(-9.7%)

- 주요 업종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3.8%), 기타 기계 및 장비(10.7%), 식료품 제조업(8.5%)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3.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0%)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26.3%), 원동기 및 펌프(14.7%), 주단조품(9.9%)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기기(-23.1%), 자동차부품(-5.0%)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울산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9.4%), 고용 소폭 증가(0.2%), 수출 증가(18.5%)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3%)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2.5	4.5	-4.2	-3.2	-2.9	-12.7	-10.0	-13.6	-14.0	10.7
		금속 가공제품	-11.5	2.0	12.6	5.7	5.8	7.9	8.9	5.8	9.2	23.8
		식료품	3.6	-0.8	-11.7	-13.5	-8.7	-6.6	-7.1	-5.1	-7.9	8.5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	2.2	8.9	10.8	5.3	-1.5	5.4	-5.6	-3.6	24.5
		화학제품 외	6.9	-10.5	-5.3	-9.6	2.8	-1.8	5.4	0.0	-9.5	-4.3
		석유정제품	-1.5	9.4	-5.4	-8.4	-10.6	3.9	-2.7	4.1	11.0	7.0
	경 남	기계 및 장비	9.9	4.1	-9.4	-5.9	-7.3	-22.0	-16.3	-20.9	-27.8	-2.9
		기타 운송장비	-12.7	18.6	17.4	10.1	22.2	28.4	22.9	33.5	28.6	60.8
		금속가공제품	-5.7	8.7	0.8	-1.0	1.5	-4.7	-14.8	7.0	-5.3	-6.1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11 (57.1)	19 (72.7)	22 (15.8)	23 (15.0)	24 (33.3)	21 (10.5)	21 (16.7)	21 (5.0)	21 (5.0)	19 (-5.0)
		제조업	240 (-5.9)	225 (-6.3)	221 (-1.8)	219 (-4.4)	222 (0.0)	221 (-0.5)	222 (-0.4)	222 (0.9)	217 (-2.7)	219 (-3.1)
		SOC·서비스	1,407 (2.1)	1,435 (2.0)	1,449 (1.0)	1,455 (1.6)	1,460 (0.3)	1,443 (-0.6)	1,457 (0.5)	1,440 (-1.1)	1,431 (-1.0)	1,417 (-1.0)
	울 산	농림·어업	6 (-14.3)	6 (0.0)	6 (0.0)	7 (16.7)	6 (-14.3)	5 (-28.6)	5 (-28.6)	5 (-28.6)	5 (-16.7)	4 (-33.3)
		제조업	163 (0.6)	168 (3.1)	180 (7.1)	179 (9.8)	182 (5.8)	180 (-0.6)	180 (1.7)	180 (-0.6)	181 (-1.6)	178 (0.0)
		SOC·서비스	385 (-1.8)	392 (1.8)	386 (-1.5)	388 (-3.2)	385 (-2.3)	390 (1.6)	389 (0.0)	395 (1.8)	384 (2.7)	377 (0.3)
	경 남	농림·어업	203 (10.3)	220 (8.4)	208 (-5.5)	219 (-6.4)	217 (-8.8)	201 (-6.1)	225 (-3.4)	198 (-7.5)	178 (-8.7)	176 (-4.3)
		제조업	377 (-5.5)	390 (3.4)	372 (-4.6)	360 (-8.6)	359 (-5.8)	394 (-0.3)	383 (-0.8)	397 (-1.0)	403 (1.3)	400 (5.3)
		SOC·서비스	1,151 (0.5)	1,130 (-1.8)	1,179 (4.3)	1,213 (6.6)	1,193 (6.0)	1,167 (3.2)	1,174 (4.0)	1,175 (2.6)	1,153 (2.9)	1,139 (2.2)
수 출	부산		14,816 (30.9)	16,192 (9.3)	15,114 (-6.7)	3,996 (-5.2)	3,719 (-9.7)	3,667 (-5.0)	1,137 (-9.5)	1,230 (-4.4)	1,300 (-1.1)	1,041 (-9.7)
	울산		74,268 (32.4)	90,154 (21.4)	87,364 (-3.0)	20,729 (-11.2)	21,771 (-6.1)	23,493 (5.5)	7,661 (10.0)	7,291 (4.1)	8,541 (3.0)	7,635 (18.5)
	경남		39,262 (9.4)	36,429 (-7.2)	41,941 (15.1)	10,805 (25.3)	9,821 (6.4)	12,301 (31.8)	4,327 (47.7)	3,178 (3.1)	4,796 (44.2)	3,714 (29.0)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24.5%), 석유정제품(7.0%)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0.0%)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3%)의 고용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39.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32.7%), 석유제품(17.4%)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경남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16.6%), 고용 증가(2.1%), 수출 증가(29.0%)
- 주요 업종인 금속가공제품(-6.1%), 기타 기계 및 장비(-2.9%)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타 운송장비(60.8%)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5.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2%)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3,067.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51.3%), 자동차부품(3.3%)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6) 강원·제주권

□ 강원

- 전년동월비 생산 소폭 감소(-0.4%), 고용 증가(1.9%), 수출 증가(7.0%)
- 대표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15.2%)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광물제품(-6.4%), 음료 제조업(-1.9%)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18.4%), 농림·어업(6.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의 고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11.4%)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산가공품(53.5%), 전자응용기기(18.5%)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1.4	-1.6	-5.5	-3.0	-9.2	-4.7	-14.4	-3.6	4.7	-6.4
		식료품	1.2	0.8	-6.6	-6.2	2.3	-13.5	-6.5	-9.0	-24.2	15.2
		음료	5.0	29.6	7.3	1.6	3.4	1.5	17.2	10.5	-23.0	-1.9
	제 주	음료	4.4	0.8	-7.4	-5.1	-10.7	-18.4	-28.2	-25.7	2.3	36.3
		식료품	2.4	8.1	-8.6	-11.7	-6.5	-4.4	-4.7	0.0	-8.3	-2.7
		비금속 광물제품	4.0	1.4	0.9	20.3	-5.1	-7.5	-2.0	-14.6	-4.8	-9.5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69 (-15.9)	72 (4.3)	77 (6.9)	88 (0.0)	98 (11.4)	79 (23.4)	100 (22.0)	91 (24.7)	45 (18.4)	34 (6.3)
		제조업	55 (-3.5)	54 (-1.8)	55 (1.9)	55 (1.9)	55 (5.8)	61 (15.1)	60 (9.1)	62 (17.0)	61 (19.6)	58 (18.4)
		SOC·서비스	678 (4.5)	686 (1.2)	705 (2.8)	724 (5.1)	711 (1.1)	693 (-0.9)	702 (-0.4)	700 (-1.5)	675 (-0.7)	660 (0.6)
	제 주	농림·어업	67 (-9.5)	63 (-6.0)	52 (-17.5)	52 (-18.8)	49 (-21.0)	52 (-20.0)	53 (-17.2)	53 (-17.2)	51 (-22.7)	53 (-7.0)
		제조업	14 (16.7)	16 (14.3)	15 (-6.3)	16 (0.0)	15 (-6.3)	13 (-18.8)	13 (-13.3)	13 (-18.8)	13 (-18.8)	13 (-18.8)
		SOC·서비스	302 (3.4)	323 (7.0)	335 (3.7)	334 (5.4)	341 (4.6)	341 (2.4)	342 (1.5)	345 (2.7)	337 (3.4)	335 (5.0)
수 출	강원		2,729 (34.9)	2,750 (0.8)	2,710 (-1.5)	692 (-6.9)	732 (15.5)	662 (5.1)	217 (-0.9)	215 (5.9)	230 (10.6)	198 (7.0)
	제주		228 (47.1)	197 (-13.6)	194 (-1.5)	39 (-22.0)	46 (15.0)	68 (28.3)	18 (38.5)	22 (15.8)	28 (33.3)	16 (23.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제주

●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7.1%),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23.1%)

- 주요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9.5%), 식료품 제조업(-2.7%)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료 제조업(36.3%)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18.8%), 농림·어업(-7.0%)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0%)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수출품 중 어류(-14.1%)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호식품(127.5%), 반도체(51.6%)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01 자동차 수출 감소로의 전환과 향후 위협 요인²⁾

□ 올 2월 자동차 수출, 감소로 전환

-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국산 자동차의 상품성 향상에 힘입어 올 1월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³⁾
 - 국내 자동차 수출은 2022년 7월 이후로 전년동월비 기준 19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이러한 추세를 주도
- 하지만, 올 2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비 8.2% 감소하며, 이어져 오던 증가세를 마감
 - 설날 연휴와 일부 업체의 생산 설비 공사 등으로 인한 전년동기비 영업일수 감소가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⁴⁾
 - 동력원별로 살펴보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가장 낮은 감소폭을 기록

2) 본 글에서는 HS 코드 기준 870320부터 870380까지의 수출액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 동향을 논의함에 따라, '주요 산업별 동향'의 수출 관련 수치와 차이가 존재함에 유의.

3) 본 글에서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4) 산업통상자원부(2024),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월 1일.

우리나라의 동력원별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0	2021	2022	2023		2024년 2월	2월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월			
내연기관차	28,493	32,649	35,594	44,048	3,347	3,217	-3.9	15.6
하이브리드차	2,532	4,676	6,269	7,737	620	607	-2.0	45.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704	1,340	1,638	2,135	195	130	-33.6	44.8
전기차	3,904	5,649	8,176	14,335	1,207	975	-19.2	54.3
합계	35,633	44,314	51,676	68,255	5,369	4,929	-8.2	24.2

자료: 한국무역통계 정보 포털(TRASS)의 월별 수출입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 HS 코드 기준 870320부터 870380까지의 수출액 합계와 차량 동력원별 수출액 합계이며, '2월 증감률'은 2023년 2월 대비 2024년 2월 증감률을 의미하며, '연평균 증감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

□ 누계액 기준 2024년 자동차 수출 동향

-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차이에서 생기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1월과 2월 수출액 합계를 통해 수출 동향을 관찰
 - 구정은 음력에 기반하고 있어 1월과 2월의 경우 전년동월비 수출 증감률을 통해 수출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으므로, 1월과 2월 수출 합계를 통해 수출 동향을 관찰

1월, 2월 합계 기준 우리나라의 동력원별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내연기관차	4,153	5,583	5,125	6,351	7,125	12.2	14.4
하이브리드차	329	717	903	1,185	1,263	6.6	4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98	184	234	365	263	-28.1	27.9
전기차	369	705	1,293	2,264	2,265	0.0	57.4
합계	4,949	7,188	7,555	10,165	10,916	7.4	21.9

자료: 한국무역통계 정보 포털(TRASS)의 월별 수출입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 2024년 2월까지의 누적 수출액 기준 HS 코드 870320부터 870380까지의 수출액 합계와 차량 동력원별 수출액 합계이며, '2024년 증감률'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률을 의미하며, '연평균 증감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

- 2개월에 걸친 자동차 수출액을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수출은 7.4% 증가 기록
 - 연도별 평일 수에 기반해 산출한 일 평균 수출액도 전년동기비 4.8% 증가
 -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7.5%에서 2024년 34.7%로 2.8%포인트 하락
 -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2.3%에서 20.7%로 1.5%포인트 하락
- 1월과 2월 수출액 합계 기준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2024년 최대 수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순으로 2023년과 동일
 - 다섯 국가에 대해 2020년 이후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

1월, 2월 합계 기준 우리나라의 동력원별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동력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미국	합계	2,093	2,844	2,988	4,335	5,626	29.8	28.1
	친환경차	106	302	854	1,572	1,821	15.8	103.4
	전기차	36	59	476	767	972	26.8	127.7
캐나다	합계	423	609	509	786	803	2.2	17.4
	친환경차	43	108	107	259	279	7.5	59.9
	전기차	22	51	52	127	208	64.4	76.1
호주	합계	214	384	420	551	460	-16.5	21.1
	친환경차	5	7	20	61	95	56.2	108.5
	전기차	5	6	16	45	44	-2.3	75.2
영국	합계	172	309	447	425	440	3.6	26.5
	친환경차	133	248	354	325	353	8.6	27.7
	전기차	51	149	197	236	247	4.7	48.3
독일	합계	156	299	246	415	285	-31.2	16.4
	친환경차	99	197	174	302	168	-44.5	14.0
	전기차	57	110	113	271	153	-43.8	28.1

자료: 한국무역통계 정보 포털(TRASS)의 월별 수출입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 2024년 2월까지의 누적 수출액 기준 HS 코드 870320부터 870380까지의 수출액 상위 5개국의 수출액과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수출액 합계이며, '2024년 증감률'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률을 의미하며, '연평균 증감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

- 2024년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비 29.8% 증가했지만, 독일 수출은 31.2% 감소
 - 호주의 경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비 감소하였지만, 친환경차 수출이 56.2% 증가

□ 전기차 수출 위협 요인

- 2개월에 걸친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수출에 위협 요인
 - 전기차 수출 증가세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가능
 - Deloitte(2022, 2023,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 비중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⁵⁾
 -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반면,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낮은 인도와 중국에서는 잠재적인 전기차 구매 수요가 증가세 기록
 - 고금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에 관한 이슈 등도 전기차 수요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Deloitte(2024)에 따르면, 다수의 소비자가 전기차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충전 시간을 꼽았으며, 공공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남.⁶⁾
- 최대 수출국인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위협 요인
 -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정부 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미 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5) Deloitte(2022), 2022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Deloitte.
 Deloitte(2023), 2023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Deloitte.
 Deloitte(2024), 2024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Deloitte.

6) Deloitte(2024), 2024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Deloitte.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동력원 선호 변화

단위: %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대한민국	37	38	40	24	27	28	11	13	10	23	17	16
미국	69	62	71	17	20	17	5	8	5	5	8	6
동남아시아	66	51	54	15	17	19	11	15	13	5	13	10
인도	58	53	50	21	20	24	10	12	12	5	8	10
독일	49	51	56	18	15	11	12	12	13	15	16	15
일본	39	36	41	37	36	39	11	12	11	11	13	7
중국	58	45	34	17	14	18	6	12	13	17	16	34

자료: Deloitte(2024), 2024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Deloitte; Deloitte(2023), 2023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Deloitte; Deloitte(2022), 2022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Deloitte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2024년 조사에만 응답에 '모르겠음(Don't know)'이 존재함에 따라 해당 응답을 제외하고 100%가 될 수 있도록 수치를 조정.

- 2024년 2월까지의 누적 수출액 기준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에서 51.5%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은 우리나라 수출에 위협 요인
- 2023년 전체 수출액에서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7.1%

□ 시사점

-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 대응을 위한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동시 추진
 - 세밀한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한 차량의 상품성 개선 방안 수립에 더해 수요를 고려한 전기차 인프라 확충 정책 추진 필요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 방안 수립 필요
 - 올해 미국 대선을 포함해, 인도, EU 등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필요

송명구 | 시스템산업실 연구위원